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1945~1950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 수 연

1945~1950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지도교수 이 동 원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 수 연

강수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유일한' 여성조직이자 사회단체였던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을 실증적·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이때 여맹을 일방적인 동원 기구 또는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기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여맹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1945년 11월 18일 38선 이북에서 자생적인 여성단체들의 통일조직으로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 출범했다. 여맹 지도부는 여성의 처지 개선과 국가건설 사업 참여라는 목표를 함께 내세웠는데, 이는 식민지기 여성운동의 영향과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혼합된 결과였다. 여맹 지도부는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동력을 이어받아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문맹퇴치나 축첩제와 같은 조선여성의 공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동시에 해방 직후 여맹 지도부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면한 정치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가건설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했다. 여맹은 국가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각종 의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초기 여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을 지지함으로써 해방 직후 당면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특히 남녀평등권법령을 선전하고 해설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여맹 지도부는 남녀평등권법령 시행을 통해 여성 차별의 제도적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 여성들의 교양과 의식화 사업을 벌였다. 여맹은 여성들이 봉건사상을 대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여맹은 애국주의를 제고하는 정치교양사업에 집중했다. 정치교양사업 출석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여맹의 선전교양사업과 의식화 작업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이후 여맹은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설운동에 매진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맹은 여성들에게 재생산 의무와 가정일의 전담이라는 이중 역할을 요구했으며, 국가사업 시행에 있어 성별 분업 인식을 유지했다. 여맹은 군대, 학교, 노동자 등을 원호하는 사업이나 농업·공업 분야의 직접 생산, 제방수리나 도로수선과 같은 수리 사업 등에 참여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해 여맹은 애국주의를 토대로 여성들의 생산성을 일층 제고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분야로의 진출과 양잠업을 강조했다. 여맹은 또한 직업여성을 위한 탁아소 수립에 힘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탁아소 설립과 운영은 많은 한계를 지녔다. 게다가 여성의 이중역할 요구는 여성들이 직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고충으로 작용했다.

여맹의 활동 범위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았다. 여맹은 1948년 9월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국제민주여성연맹이라는 국제여성단체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여맹은 국제활동을 북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홍보했으며, '세계 선진 여성'의 모습을 국내 여성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각종 건국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여맹의 국제활동은 냉전의 자장 속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활동은 일방향적인 선전 외에 다른 가능성을 담지했다. 국제여맹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여성들만이 참여한 기구는 아니었으며, 각국의 여성들, 특히 탈식민 국가의 여성들은 국제여맹이라는 국제적 연대 기구를 통해 여성 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여맹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기구 그 이상의 성격을 지녔다. 당시 북한에서 '동원'의 개념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혼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여맹 지도부는 여성해방과 민족국가 건설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를 각종 사업에서 여성 동원의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많은 여성들은 여맹의 논리에 호응하여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문화적인 수준은 일층 향상했으며, 축첩제 폐지나 탁아

소 제도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맹의 사업은 실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맹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북한에서 여성이 이미 '해방'되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한계를 보였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으며, 가정일에 대한 여성의 부담은 거의 덜어지지 않았고, 여성의 직장 진출도 기대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맹은 논리상으로 내적인 모순을 드러냈는데, '남성과 동등한' 사회 진출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일'을 요구했으며, 국제적으로는 반식민 여성운동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여성운동의 과제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주요어 :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국제민주여성연맹, 조선여성, 북한여성, 사회단체, 여성해방
학 번 : 2018-23287

목 차

머리말 ····· 1

一 .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창설과 조직 ····· 8
1. 여맹의 창설과 노선 설정 ····· 8
2. 맹증수여사업과 조직 강화 ····· 20

二 .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활동 ····· 32
1. ‘민주개혁’ 지지와 선전교양사업 ····· 32
2. 국가사업 참여와 생산성 제고 노력 ····· 47
3. 반(反)식민국제활동과 평화옹호운동 ····· 60

맺음말 ····· 73

참고문헌 ····· 78
부록 ····· 82
Abstract ····· 88

표 목 차

[표 1] 여맹 제1차 대표대회 선출 임원 ····· 11
[표 2] 1947~1949년 여맹의 활동 사례 분류 ····· 48

그 림 목 차

[그림 1] 맹원 수 변화 ····· 23
[그림 2] 1947년 11월 맹원 성분(기준: %) ····· 24
[그림 3] 면 책임지도원 제도 이후 여맹 조직 체계 ····· 26

머리말

1945년 8월 일제와 전쟁을 개시하면서 소련군은 한반도 북부[1]에 진주했다. 소련군이 진주하던 시점에 한반도에서는 많은 정치세력이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 가라앉았던 다양한 정치사회적 의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식민지기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세력 역시 여성해방과 국가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곳곳에서 여성단체를 조직했다.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부녀동맹·여성동맹·해방부녀회 등의 여성단체를 창설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여성단체를 통합해 여성을 망라한 하나의 '사회단체'[2]를 창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945년 11월 18일 북한 지역 6개 도 여성 대표들이 평양에서 모여 여성총동맹(女性總同盟)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 이하 '여맹')의 모체였다.[3]

여맹 지도부는 통일된 조직 아래 다수의 여성 대중을 조직화하는 한편, 이들을 계몽하고 국가건설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여성해방을 위한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 여맹 지도부는 당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문화수준 향상 및 경제적 독립과 재생산의 사회화 등의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했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들이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선결 과제 해결 이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 세력은 대중운동 조직화의 경험이 부족했고, 해방 직후 여성운동을 이끌 인적 자원은 한정적이었다. 게다가 해방 직후 한반도 전역은 무엇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핵심 문제로 인식했다. 이러한 정

---

1) 본고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의 정부가 수립하기 이전 38선 이북 지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두 '북한'으로 칭한다. 다만 맥락에 따라 '한반도 북부', '38선 이북'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2) 북한에서 '사회단체'란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적 원칙에서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149쪽).

3)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맹 지도부는 국가건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의 역량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맹 지도부는 각 지역에 여맹 지부를 설립하고 여성 대중을 맹원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여맹은 1947년도 들어 이미 백만 명이 넘는 맹원을 보유했다.

이처럼 여맹이 북한 지역 여성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여맹의 조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1945~1950년 시기 북한사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당'(黨)과 주요 정치세력의 북한 체제 건설 과정을 다뤘으며, 그 과정에서 당과 대중 사이를 잇는 가교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을 분석했다.[4] 이들 연구들은 체제 건설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단체를 분석했기에 개별 사회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했던 만큼 그 내부 구조과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개별 사회단체의 활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5]

여맹에 관한 연구는 사회단체로서 여맹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북한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 북한 여성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맹의 조직과 활동을 부분적으로 소개했다. 박현선, 윤미량, 김현숙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6] 이 연구들은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여성정책과 법령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선구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정책을 다루면서도 북한 정치세력이 어떠한 여성상을 만들어내고자 했으며, 이로써 어떠한 근대 여성 주체가 탄생했는지에 주목했다. 박영자, 수지 김(Suzy Kim), 김재웅 등이 이러한 경향에 속한다.[7] 이 연구들은 해방 직후 북한의 주요 정치세력과 여맹이 국가를 위

---

4)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Ⅰ》, 선인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 김재웅, 2018 《북한 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5) 곽채원, 2014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7(3) ; 류기현, 2016 〈1945~1950년 조소문화협회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 박현선, 1988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1945.8~1947.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여성학연구 ; 김현숙, 1997 〈북한 여성정책의 변화〉 《통일논총》 15.

해 생산과 가정의 영역을 모두 도맡는 이중 역할을 여성들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여성운동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면서 명백한 한계를 지녔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북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밝혔을 뿐 아니라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려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로서 여맹의 조직과 활동을 피상적으로 다루었을 뿐, 여성사업에서 여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여맹은 여성을 대표하는 북한 내 '유일한' 조직으로 백만 명이 넘는 맹원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국가의 여성정책을 선전하고 실행했다. 따라서 여맹의 활동과 역할을 파악하지 않고 북한의 여성사업과 여성의 지위를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사회단체로서 여맹 조직 자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여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먼저 여맹을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을 일방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정치기구로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손봉숙, 정성임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8] 손봉숙은 여맹이 여성 대중의 자발적 의지를 모아내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혁명과제를 여성대중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정성임도 여맹이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해방 직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들은 여맹 활동의 결과가 아닌 북한 지도부의 체제전환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맹이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9] 김광운은 해방 직후 북한 여성들이 여맹

---

7) 박영자, 2004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1945~47) - 《김일성저작집》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6 ; Suzy Kim, 2010 "Revolutionary Mothers: Women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2(4), pp.742-767 ; 김재웅, 2015 〈해방된 자아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정책의 굴절(1945~1950)〉 《한국사연구》 170 ; 박영자, 2017 《북한 녀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앨피.

8) 손봉숙, 1998 〈조선민주여성동맹 연구〉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 정성임, 2004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한울아카데미.

을 결성해 국가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특히 여성의 정치활동 진출과 조직사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대중적 기반이 미약했으며, 사회적으로 성적(性的) 불평등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의 연구는 폭넓은 사료를 활용해 역사주의적으로 여맹 조직의 초기 형성 과정과 활동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은 여맹의 조직과 활동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단체와 당, 그리고 중앙정권기관[10]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는 여맹 조직의 자체적인 변화상을 포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당의 외곽단체'[11]로서 여맹을 전제했으며, 여맹의 성립 과정과 조직 및 성격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여맹은 자체적인 조직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여맹 내 '당조'(黨組)가 수립된 이후에도 완전한 당의 외곽단체로 활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단체로 기능하며 정권기관이 주도한 국가건설사업에 동참했다. 둘째, 여맹의 복합적인 성격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국가의 일방적인 동원기구 또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라는 이분법적 평가는 여맹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여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맹 지도부의 자체적인

9) 김광운, 2005 〈해방 직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상황과 정치 참여〉 《사학연구》 77.

10) 기존 연구는 대체로 해방 직후 북한에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이 1. 북조선행정10국(북조선5도행정국),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3. 북조선인민위원회,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김광운, 2003 앞 책 ; 서동만, 2005 앞 책 ; 기광서, 2011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구》 19(2)). 본고 역시 '중앙정권기관' 또는 '정권기관'을 이러한 기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북조선행정10국은 각 지역의 행정을 조정, 연계할 필요성에서 조직된 '중앙행정기관'에 가까우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행정과 입법을 동시 수행하는 '최고행정주권기관'이었지만 주민 선거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임시 정권기관'이었으므로, 맥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임시 정권기관'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11) '당의 외곽단체'란 당 지도하에 있는 사회단체로서 당과 대중과의 연계를 보존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킨다. 이때 당은 당 외곽단체를 그 단체 내의 당원들이 조직한 '당조'(黨組) 및 '당단체'를 통해 지도한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72~73쪽).

논리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 여맹 지도부는 해방 직후 국가건설이라는 과제에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동력을 수용하며 나름의 논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셋째, 여맹 활동의 전체상과 그 다양성을 해명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들은 여맹의 활동을 피상적으로 나열하거나 특정 분야와 시기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맹은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통해 북한의 평화운동과 외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유의하며, 본고는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적 변화와 전체적인 활동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 형성된 여성해방운동의 동력이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서 여맹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과 어떠한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대의 주요한 여성문제가 무엇이었으며, 북한 지역에서 이러한 여성문제가 여맹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취급되고 귀결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총 2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1장에서는 해방 직후 여맹의 창설과 조직 변화 및 성격을 살펴본다. 특히 여맹이 1947년도 맹증수여사업을 기점으로 조직을 질적으로 정비하는 과정과 당조 수립을 통한 당과 여맹의 관계를 고찰한다. 또한 여맹 지도부의 여성문제 인식과 여성해방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 노선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주제별로 여맹의 주요 활동을 분석한다. 먼저 해방 직후 여맹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 '민주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여성문제를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여성들을 의식화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여맹이 각종 국가사업 및 생산활동에 뛰어들었던 논리와 실제적인 활동사례, 그리고 일반 맹원들의 반응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여맹 활동에 대한 분석 범위를 확장시켜 국제민주여성연맹(WIDF: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을 통한 여맹의 국제활동 전개와 그 의의 및 한계를 고찰한다.

본고는 미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Ⅱ)의 RG 242, 해외노획문서 컬렉션(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675-1958)에 소장된 여맹 관련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RG 242에는 일명 미군이 한국에서 노획한 문서(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이하 '노획문서')로 불리는 6·25전쟁 기간 수집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12] 노획문서 자료 중 대부분이 국내에 출간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북한관계사료집》과 같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획문서철에 소장된 여맹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여맹의 활동과 조직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본고는 여맹의 기본적인 활동상과 노선을 살펴보기 위해 여맹의 기관지인 《조선여성》을 주로 활용했다.[13] 발행처인 조선여성사는 1946년 9월 창간호가 나온 이후 몇몇 호를 제외하고는 매월 《조선여성》을 출간했다. 《조선여성》은 조직 활동의 지침서이자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로서 지방에 있는 여맹 각 지부에 배포되었다. 《조선여성》의 항목은 크게 "논설", "문예", "가정", "소련소식", "지방소식"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지방소식", "여맹생활단신", "녀맹생활", "녀맹단신"과 같은 제목의 고정란은 각 지역의 여맹 활동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여맹의 대략적인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여맹 중앙의 조직 지침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이 있다.[14] 이 자료는 여맹 중앙위원회 조직부가 여맹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리한 요강으로, 여맹의 조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12) 정용욱, 2003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 49쪽.

13) 《조선여성》은 RG 242 내 Box 61, 63, 620, 621, 622, 1235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하 본고에서 《조선여성》에 대한 출처는 '필자명, 《조선여성》 호수, 글 제목, 쪽수'로 약칭한다.

14) National Archives Ⅱ,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Entry (NM-44) 299G,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이하 '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으로 약칭.

다음으로 여맹과 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946년 8월 창립된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부터 각 사회단체 내 당조를 설립함으로써 단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여맹 내 북조선로동당원들도 당조를 수립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여맹의 상무위원회 회의 이전에 주요 사안을 토의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여맹의 당조가 남긴 기록을 통해 여맹과 당의 관계뿐 아니라 여맹 사업의 내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강원도 인제군의 여맹 당조 회의록을 통해 지역 단위 여맹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했으며, 여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를 활용하여 여맹 사업의 진행 상황을 분석했다.[15]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는 여맹 당조의 내부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맹 사업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밖에 북한의 당·중앙정권기관이 발행한 《정로》, 《로동신문》, 《인민》 등을 활용했다. 이 자료들은 여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당대 북한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15) National Archives Ⅱ,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Entry (NM-44) 299C,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이하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으로 약칭.

一.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창설과 조직

1. 여맹의 창설과 노선 설정

해방과 함께 각종 정치·사회단체가 한반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출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가 조국의 완전독립과 여성해방의 기치를 내걸고 곳곳에서 출현했다. 한반도 북부에는 부녀동맹·여성동맹·해방부녀회 등의 여성단체가 존재했다.[16]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은 각기 활동하던 여성단체들을 통합할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세력은 각지에 있는 단체들을 성별, 직업, 나이 등에 따라 하나의 '사회단체'로 통합해 장차 민족통일전선 운동으로 흡수하고자 했다.[17] 김일성은 1945년 10월 25일 평양시 여성들에게 한 연설에서 대중적인 민주주의 여성조직을 창설해 건국사업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18] 이러한 호소에 힘입어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통합하는 데 앞장섰다.

1945년 11월 18일 평양시에서 6도 대표자 협의회가 소집되어 해방 후 처음으로 여성단체 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을 망라한 사회단체로서 여성총동맹을 결성했다.[19] 당시 여성총동맹의 위원장은 박정애

---

16) 북조선여맹중앙위원회 허금순,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三八婦女節을맞으면서 과거조선女性과 당면과업」, 87~91쪽.

17) 김광운, 2003 앞 책, 194쪽.

18)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저작집》 1 「현 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평양시 녀성일군들 앞에서 한 강연(1945.10.25.)」 365~373쪽.

19) 홍재순, 《순간(旬刊) 북조선통신》1947년 12월 상순호, 「長成하는 北朝鮮社會團体들 (四)」 11-13쪽 ;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사료마다 조금씩 기록이 달라 설립 당시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알기는 어렵다. '중앙여성동맹', '조선 여성동맹', '여성총동맹', '여성동맹' 등이 혼용되었던 것 같다. 다만 《정로》 1946년 1월 3일자 「朝鮮에關한蘇米英三國外相모스크바會議의決定에對하야」에 실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공동지지성명에는 "女性總同盟 委員長 朴正愛"가 서명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朴正愛)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1907년 소련에 이주한 조선 빈농가의 딸로 출생하여 1923년 소련공산당과 소련공산주의청년회에 가입했으며, 1932년에는 조선으로 귀국해 평양고무공장의 직공으로 있으면서 적색노조운동에 매진했다.[20] 여성총동맹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박정애는 1945년 10월 수립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21]의 평안남도 대표로서 집행위원이자 부녀부장이었다.[22] 박정애와 함께 항일유격대 대원이었던 김정숙(金貞淑), 김철호, 김성옥, 김명숙 등이 여성총동맹 조직 사업에 참여했다.[23] 이처럼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여성총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으나, 이 시기 여성총동맹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모두 참여한 느슨한 연합조직에 가까웠다. 박정애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 외에도 조만식이 이끄는 조선민주당[24] 소속 박현숙(朴賢淑)[25] 등이 여성총동맹에 참여했다.[26]

1946년 5월 제1차 대표대회에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으로 조직명을 정식 개칭하기 전까지의 조직을 '여성총동맹'으로 지칭한다.

20) 박정애, 《정로》 1946년 2월 20일자, 「女性의 向上을 爲한 政策실시에 奮鬪 -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 朴正愛同志談」; 《매일신보》 1935년 9월 24일자, 「共産黨 秘命으로 男女가 潛入 병긔창 직공으로 취직 대활약 一黨五名의 暗躍相」.

21)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은 공산당 및 행정기구의 북조선 분국 수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45년 10월 수립되었다. 1946년 4월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통일했다(김광운, 2003 앞 책, 192쪽).

22) 서동만, 2005 앞 책, 72쪽.

23) 김광운, 2005 앞 논문, 141~142쪽. 항일유격대 대원들의 자세한 이력은 김광운의 논문을 참조하라.

24) 해방 이후 한반도 서북지역의 민족주의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이후 노선 변화와 조직 재정비를 거쳤으며, 1981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정원영, 2018 〈조선민주당 연구: 형성 과정과 활동 노선(1945~1948)〉,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25) 박현숙(朴賢淑)은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하고 항일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해방 직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여성부장을 맡았다. 여맹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남조선에 내려와 여성운동을 펼쳤다. 조선여자국민당 소속으로 과도입법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남한 지역의 여성단체를 규합한 "전국여성단체총연맹" 창립에 참여했다. 입법의원으로서 여성의 지위 신장과 권리 회복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정원영, 2018 위 논문, 18~19쪽 ; 《경향신문》 1946년 12월 15일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開院式에臨하는女議員의印象=」 ; 《경향신문》 1946년 11월 16일자, 「全國女性團體 總聯結成大會」 ; 《조선일보》 1946년 12월 9일자, 「朝鮮過渡立法議院」).

26) 김재웅, 2015 앞 논문, 394~395쪽.

각기 다른 정치적 노선을 가졌던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총동맹으로 모일 수 있던 까닭은 이들이 민족통일전선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여성총동맹의 지도자들은 식민지기 억압받던 여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지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여성총동맹은 일제의 잔재를 숙청하고 조국의 민주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동시에 여성총동맹은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조직의 목표를 알리고 이들을 조직에 가입시킴으로써 대중적인 사회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성총동맹은 도, 시·군, 면, 리(동)과 같은 각 행정단위에 조직을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27]

연합전선의 성격을 띤 여성총동맹 지도부 구성은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일련의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재정립되었다. 여성총동맹 지도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를 끝까지 반대한 박현숙 계열의 인사들을 사상투쟁 끝에 조직에서 배제했다.[28] 박현숙은 이남으로 내려가 남한 지역의 여성단체를 통합하려 하는 등 여성운동에 매진했다. 이후 여성총동맹은 1946년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대표대회를 열고 조직의 명칭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하 '여맹')으로 개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이 대회에서 여맹은 우선 중앙지도기관을 재구성했다. 위원장 박정애를 비롯하여 부위원장에 최수화와 안신호를 선출했으며, 집행위원과 각 지역별 사무집행위원을 결정했다.[29] 집행위원과 사무집행위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집행위원이 조직의 큰 활동과 방향을 결정하고, 사무집행위원이 활동의 실무적인 부분을 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각 지역으로 여맹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초기 여맹은 사무집행위원으로 북한의 6개도를 각각 담당할 대표를 2명씩 선출했다.[30] 선출된 임원명은 아래 [표 1]과 같다.

---

27)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28)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전호게속-」, 9~15·26쪽.

29) 《정로》 1946년 5월 19일자, 「女性解放의 旗幟確立 女性同盟大會」.

[표 1] 여맹 제1차 대표대회 선출 임원

위원장	박정애
부위원장	최수화, 안신호
집행위원	박정애, 허정숙, 안신호, 최수화, 한명신, 손석정, 최인애
사무집행위원	안신호·조영(평남), 김상석·김칠희(함남), 백원복·백명주(평북), 최수화·임철희(함북), 김원주·이정희(황해), 김복히·김신애(강원)

출전: 《정로》 1946년 5월 19일자, 「女性解放의 旗幟確立 女性同盟大會」.

제1차 대표대회 당시 여맹 간부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으나,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허정숙(許貞淑)은 식민지기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36년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해방 이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장 등을 거쳤다. 여맹 제1차 대표대회 당시 박정애와 마찬가지로 북조선공산당 소속이었다. 평안남도 사무집행위원인 조영(趙英)은 1935년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했으며, 1942년 조선독립동맹의 간부로 활약했다. 이후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 합당으로 창설된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 부녀사업부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이자 평안남도 사무집행위원인 안신호는 안창호의 동생으로 1946년 10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북조선로동당 소속으로 입후보한 바 있다. 황해도 사무집행위원 김원주는 김일성의 사촌동생으로 항

30) 이후 여맹의 중앙지도기관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무위원,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1950년도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당시 여맹의 지도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조선중앙통신사, 1950 《朝鮮中央年鑑》, 241쪽).

위원장	박정애
부위원장	리금순, 한명심
상무위원	박정애, 리금순, 한명심, 김은주, 허금순, 김경옥, 최숙자, 김상애, 고백선, 김영수, 지효성
중앙위원	박정애, 리금순, 한명심, 허정숙, 신용복, 김귀선, 유연한, 조영, 최은혜, 김상애, 고백선, 허금순, 지효성, 김철히, 김상석, 최숙자, 리종희, 최수화, 김복히, 리정순, 김경옥, 최신도, 안신호, 김영수, 김은주, 백명주, 백원복, 진백옥, 정석종

일투쟁에 투신하다가 해방 후 인민군 군사간부양성부문에서 복무했다.[31]

이들 중 허정숙을 제외하고 식민지기 여성운동에 투신했던 이력을 가진 이는 드물다. 이들은 다만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여맹이라는 여성단체에 모였다. 당시 '여성' 지도자라면 비록 뚜렷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여성운동을 이끌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항일운동 경험이 있는 명망 있는 여성들이 여맹 지도부에 선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1차 대표대회에서 여맹은 구체적인 당면 활동 목표를 담은 결정서를 채택했다.[32] 결정서에서 여맹은 1946년 2월 북한 지역의 중앙정권기관을 자임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20개조정강」이 인민을 위한 근본 시책이며, 향후 수립될 정부의 기본 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0개조정강」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행하는 '민주개혁'과 정치노선을 구체화한 것이었다.[33] 「20개조정강」은 5조에서 "전체공민들에게 성별 신앙 및 자산의 다소를 불구하고 정치 경제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평등권을 그 내용에 포함했다.[34] 여맹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토지개혁을 지지하고 파종 사업 등 생산 증가에 참여할 것, 문맹퇴치사업을 벌일 것,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과 투쟁할 것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맹은 무엇보다 많은 여성 대중에게

---

31) 北朝鮮勞動黨 平安南道黨 婦女事業部長 趙英, 《로동신문》 1947년 1월 18일자, 「平南陽德郡黨 婦女事業에對하여」 ;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1990 《北韓人名辭典》, 362쪽 ; 강만길·성대경 편, 2014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 서동만, 2005 앞 책, 선인, 83·179~180쪽 ; 김광운, 2003 앞 책, 182·408·475·600~601쪽.

32) 결정서 전문은 [부록 1] 참고. 출처는 《조선여성》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朝鮮民主女性總同盟第一次代表大會決定書」, 17~18쪽.

33) 김광운, 2003 앞 책, 278~279쪽.

34) 김준엽·김창순 외 편, 2010 《북한연구자료집》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53쪽.

조직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선전'해야 했다. 제1차 대표대회 당시 여맹원 수는 이미 약 60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 결정서에서 여맹은 조직을 양적으로 확대한 것에 비해 지도부와 대중이 분리되고 대중에 대한 선전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맹은 또한 여성들을 '교양'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특히 식민지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대다수였기에, 여맹 지도부는 '봉건적 도덕인습'을 타파하고 여성들의 문맹 상태를 척결하는 등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선전교양사업을 위해 여맹은 기관지를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 여맹은 1946년 9월 6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기관지 《조선여성》을 월간으로 발행했다. 《조선여성》은 조직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서이자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였다.[35]

교양의 대상은 일반 여성 대중에 그치지 않았다. 여맹 지도부는 각 행정단위에서 여맹을 이끌 간부를 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에 맞게 교양할 것을 결의했다. 여맹 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일반 맹원들을 각급 단위에서 지도할 간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36] 여맹 지도부는 이후에도 꾸준히 열성 맹원을 중간 간부로 양성하고 교양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각 지역 여맹은 자체적인 강습회를 개최했다. 일례로, 평안북도 여맹에서는 1947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단기간부강습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강사는 북조선로동당 간부 등이었으며, 강습 내용은 여맹 강령 규약이나 사회발전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37] 1947년 5월에는 중앙여맹 차원에서 간부강습소를 설치할 것과 중앙 선전

35) 《조선여성》은 조선여성사에서 발행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기관지이자 월간지이다. 창간호 당시 책임주필은 진백옥이었다. 1947년 6월호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진백옥이 사임하고 평남도여맹위원장 김운죽이 책임주필이 되었다. 1948년 11월 쏘련군대 환송기념 특집호는 임시주필 김영수가 편집을 맡았으며, 1948년 12월호부터는 고백선으로 책임주필이 교체되었다. 1949년 6월호부터 1950년 5월호까지는 고백선과 림은길이 각각 책임주필과 편집인을 맡았다(《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1950년 5월호에 나와있는 발행정보와 편집후기 등을 종합해서 작성함).

36)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朝鮮民主女性總同盟第一次代表大會決定書」, 17~18쪽.

37)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地方消息(平北, 咸北, 咸南篇)」, 39~40·44쪽.

부장이 각 지역 여맹 강습소의 강습내용을 작성해 배포할 것을 결정했다.[38] 1947년 8월 시점에는 총 570회의 간부강습회가 이루어졌으며 2만여명이 교양을 받았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간부강습은 교양받은 여성들이 여맹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과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39] 이 밖에도 결정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여맹은 이 대회에서 국제 여성단체인 국제민주여성연맹(WIDF: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에 가맹할 것을 결정했다.[40]

제1차 대표대회에서 여맹은 결정서 외에도 향후 조직의 활동 노선과 목표를 요약해 제시한 강령을 채택했다.[41] 다음은 여맹 강령의 전문이다.

一. 우리는 민주주의적 여성과 대동단결하여 김일성 장군이 발표한 20개정강을 그 기초로 한 조선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위한 총역량을 집중함.
二. 여성에게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강을 지지하며 이 영예를 전조선여성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분투함.[42]
三. 우리는 민주건설을 파괴하는 일절 파쇼분자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를 박멸하기 위해 분투함.
四. 조선문화의 향상과 정치 경제의 건완한 발전을 위해 분투함.
五. 여성의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을 위해 각문화운동과 산업부흥에 적극참가함.
六. 봉건적 도덕인습과 미신타파를 위해 노력함.[43]

---

38)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제五차 중앙위원회 決 정서(第一)」, 77~78쪽.
39)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40) 《정로》 1946년 5월 19일자, 「女性解放의 旗幟確立 女性同盟大會」. 여맹의 국제활동과 국제민주여성연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장 3절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41) 이금순,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맹증받은 맹원의 임무」, 56~57쪽.
42) 강령 전문이 실린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의 발행일이 1946년 9월 6일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조의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의미하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약칭해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43)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朝鮮民主女性總同盟綱領」, 8쪽.

여맹은 강령 1~3조에서 「20개조정강」에 근거한 국가건설을 지지하고 정치적 노선을 이에 일치시켰으며, 4~6조에서는 문화·정치·경제 분야에 참여할 것과 특히 문화와 경제 부문에서 여성의 처지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제1차 대표대회 결정서가 보다 구체적이고 당면한 활동 계획을 담았다면, 강령은 여맹 조직이 나아갈 장기적이고 큰 방향을 제시했다. 여맹은 강령에서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국가건설 사업 참여와 여성의 문화적·경제적 처지 개선을 동시에 주장했다. 이처럼 일견 독립적인 목표들을 함께 내세운 여맹의 활동 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맹 지도부의 여성문제와 여성해방에 대한 내적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맹 지도부의 노선은 식민지기 여성운동의 영향과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혼합된 결과였다. 우선 여맹 지도부는 조선여성운동의 역사적 흐름에 여맹을 위치시켰다. 이들은 3·1운동 이후 조선여성운동이 태동하여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 조직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인 허금순은 두 조직 성립 이후의 조선여성운동이 "도시 소시민여성 소부분"이 참여했던 것에 불과했던 이전 시기와는 다른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44] 이처럼 여맹 지도부는 식민지기 여성운동,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찾았다. 그런만큼 여맹 지도부의 여성문제 인식 역시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동력을 이어받아 형성되었다.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로 평가받는 조선여성동우회는 창립 선언에서 역사발전법칙에 따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억압을 지적하는 동시에 조선 여성 전반이 겪는 공통적인 차별문제에 주목했다.[45] 이는 마

---

44)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8~10쪽 ; 박정애, 《정로》 1946년 3월 8일자, 「八一五解放以後 첫 三八婦女節을 마즈며」 ; 허금순,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三八婦女節을맞으면서 과거조선女性과 당면과업」, 87~91쪽.

45) 조선여성동우회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녀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에서는별긔한강령(綱領)과선언을발표하고오는이십삼일에발회식을거행한다. 그선언에의하면 인류의력사가필연적법측으로 변환하야가는 과정중에 녀성이남성의횡포와류린아래에바다오던기한과 굴욕과질병으로 사람다운생활을그대로 하지못한비참하고잔혹한것을통렬하게말하엿다. 그리하야녀자는 다못 가뎡과임금과 성의노예가될뿐이오 각방면으로생활에필요한일을 힘끗다하야 사회에공헌을하여왓스나 횡포한 남성들이녀성에게주는보수는 교육을 거절하고모성(母性)을파괴할뿐이

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여성이 겪고 있는 현실적 차별을 고려한 결과였다.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1920년대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 억압의 원인을 인류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발생한 사유재산제도에서 찾았다. 사유재산제도가 출현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성적·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해방을 위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무산계급 여성들의 단결을 호소했다.[46]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점차 조선 여성들이 처한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했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통적인 억압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허정숙은 세계의 다른 여성과 달리 조선 여성이 "고루한 습관과 제도의 희생"으로 인해 극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무산계급", "개성으로 보아 노예의 지위"에 처해 있다고 보기도 했다.[47]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조선여성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는 근우회 창립으로 이어진다.

1927년 창립된 근우회는 소위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성과로 평가되지만, 근우회 내부에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이분되지 않는 여성해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근우회는 여성해방이라는 대전제 아

라하엿다. 더욱조선녀성은그우에동양풍도덕의 질곡(桎梏)에서울고잇게하니 이러한 비인간뎍생활(非人間的生活)에서분긔하야굿세게굿세게결속하자하엿다(《동아일보》 1924년 5월 22일자, 「朝鮮女性同友會, 건실하게 압길을 개척하자」)." 이처럼 조선여성동우회는 역사발전법칙에 따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억압을 강조했을뿐만 아니라 조선여성이 '동양풍도덕의 질곡'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여 조선여성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차별을 명시했다. 물론 모든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흐름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무산계급 여성의 투쟁을 보다 강조하는 세력이 있었다.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일, 2005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을 참조하라.

46) 박혜란, 1993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쪽.

47) 허정숙, 《동아일보》 1928년 1월 4일자, 「婦人運動과 婦人問題硏究(二) 朝鮮女性地位는 特殊」.

래 운동가들이 각기 다른 이념과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한 '여성해방통일전선'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48] 근우회는 창립선언에서 "조선여성의 모든 특수점"을 고려해 여성만의 독자적인 조직으로 창립되었음을 밝혔다.[49] 이에 따라 근우회의 행동강령에는 농촌여성의 경제적 이익 옹호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 등과 같은 무산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 시책 외에도 조선여성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던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폐지 및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50]

조선여성동우회와 근우회가 인식했던 주요 여성문제들은 갓 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 직후 북한에서도 여전한 문제였다. 이들 단체와 마찬가지로 여맹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마르크스주의 역사발전법칙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회제도에서 찾는 한편, 조선여성의 공통적인 차별경험을 강조했다. 여맹 중앙위원회는 "조선여성은 문자 그대로 二중 三중의 압박과 착취를당하여 왔던것"이며, "이땅의 딸로서출생한이상 부귀빈천을 물론하고 다소의차는있을만정 이러한 객관적 제약을 아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임을 역설했는데, 이는 앞서 서술했던 식민지기 허정숙의 논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51] 따라서 여맹의 실질적인 활동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여성노동자를 위한 시책을 강조하면서도 문맹퇴치운동와 축첩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조선여성 일반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해방 직후 여맹 지도부는 여성을 위한 시책들이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52] 전 인민과 민족을 위

48) 장원아, 2019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

49) 근우회의 창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우리自身의 解放을爲하야 奮鬪하는 것은 同時에朝鮮社會全體를 爲하야 나아가서는 世界人類全體를 爲하야 奮鬪하게되는 行動이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一般만을高調하야 特殊를忘却하여서는 아니된다. 故로우리는 朝鮮女性運動을 展開함에잇서々 朝鮮女性의모든特殊點을 顧慮하야 女性짜로의 全體的機關을 가지게되엇나니 如斯한組織으로써만能히現在의 朝鮮女性을 有力하게指導할수잇는것을 看破하엿기때문이다(《槿友》 창간호, 「槿友會宣言」 3~4쪽)."

50) 김경일, 2005 위 논문, 261~275쪽.

51) 북조선여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3월호, 「北朝鮮 道, 市, 君 人民委員會大會와 朝鮮女性의 장래」, 1~3쪽.

한 민주주의 국가야말로 여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국가건설이 우선적인 목표로 대두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대응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소수의 여성 지도자들만으로 여성해방운동을 이끌기에는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여맹 지도부는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건국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쟁취하고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여맹 지도부는 "민주조선 건국 전체사업의 일익을 여성적인 입장에서 담당"하도록 여성들을 교양하고 지도할 것을 핵심 활동 목표로 삼았다.[53]

이러한 관점에서 여맹의 지도부는 해방 이후 여성운동의 투쟁 대상을 남성으로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강조했다. 여맹의 기관지 《조선여성》 창간호에 실린 당시 책임주필 진백옥의 글은 이러한 지점을 잘 보여준다.

> 전민족적으로 제기되는 민족문제에 전민족의 반수를 차지한 여성을 빼놀 수없을 것이며 동시에 민족해방을 떠난 여성해방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時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은 분리하야 여성해방이 맞이 남성에게 대하는 여성운동인줄알었고 투쟁 대상을 남성으로 하였다는 것을 보게되였든 바이다. 이 결과는 갖이 손잡아갈 민족간에 단결을 파괴하였으며 우리의 력량이 감소된 반면에 객관적으로 원수 일본제국주의강도들을 도와주웟으며 그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던것이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는 할 수 있으되 따라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지금 조선의 여성문제를 조선민족해방과 분리하여서 생각한다면 그는 실현할수 없는 관렴론사상에서 나오는 뿌루주아들이 부르짓는 비과학적 리론인 것이다. 진정한 여성해방은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이 있어야만 있을것이다.

52) 사실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연결짓는 담론은 해방공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1945~46년 한반도에서는 38선 이남과 이북, 좌익과 우익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국가 건설과 민족을 위해 여성이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해야 하며, 이로써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47~48년도 남한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지나친 사회활동을 비난하는 담론이 우세했다(이임하, 2015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 영희, 38~48쪽).

53) 박정애,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朝鮮민주 건설을 위한 女性의 횟불이 되라」, 19~20쪽.

지금 조선의 여성문제는 민족문제와 떠러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잇는 그야말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은 부부이상의 굳은 맺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이다.[54]

위 인용문에서 진백옥은 과거와 같이 투쟁대상을 남성으로 설정한 여성운동이 민족간의 단결을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여성문제를 민족문제와 분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진백옥의 주장처럼 당시 여맹 지도부는 무엇보다 민족해방의 과제가 시급하다고 인식했으며, 민족해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여맹 지도부의 인식은 앞서 살펴보았던 제1차 대표대회 결정서와 여맹의 강령에 반영되었다. 특히 여맹 지도부는 당시 북한 지역의 중앙정권기관이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통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맹 지도부는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여성해방론을 이어받아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지만 해방으로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한반도에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 또한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맹을 이끌었던 이들은 여성문제 해결과 국가건설을 동시 과제로 추진하는 복합적인 인식을 가졌다.

54) 진백옥,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노동당 産生과 여성해방과의 관계」, 80~84쪽.

2. 맹증수여사업과 조직 강화

여맹은 창립 당시부터 북한 지역 여성 전체를 조직에 가입시켜 대중적 사회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맹 지도부는 각 지역 행정단위에 여맹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했다. 이들은 '여맹 중앙위원회 → 도 여맹위원회 → 시·군 여맹위원회 → 면 여맹위원회 → 리(동) 여맹위원회'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를 갖추었다. 여맹은 또한 리(동) 내에 '반'을 설치해 각종 사업의 기본 단위로 활용했다. 각 여맹위원회는 하부 부서로 '조직부', '문화교양부', '선전부' 등을 설치했다.[55] 각 부서의 역할을 명시한 자료는 찾지 못했으나, 조직부가 여맹 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문화교양부가 여맹 기관지를 관리하는 등 각종 교양사업을, 선전부가 활동 지침 및 목표에 대한 선전사업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맹은 1946년 8월 시점에 각 도와 12개 시, 616개 면에 위원회를 설립했다.[56] 1946년 말~1947년 초에는 면 아래 행정구역인 리(동)과 그 아래 반 단위까지 서서히 조직을 형성했다. 1947년 5월 14일 인제군에서 각 리 여맹 정기대회가 모두 열성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될 정도였다.[57] 여맹의 맹원 수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1차 대표대회 당시 여맹의 전체 맹원 수는 이미 약 60만명에 달했다. 1946년 12월 31일 기준 당시 북한의 여성 인구 수가 4,624,120명으로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당시 여성 총 인구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58]

---

55) 김광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직후 여맹 중앙위원회에 '조직부', '문화교양부', '총무부'가 설치되었음을 밝혔다(김광운, 2003 앞 책, 866쪽). 그러나 《조선여성》에 지속적으로 '조직부', '문화교양부', '선전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부서가 여맹위원회의 주요 부서로 그 이전부터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제五차 중앙위원회 決 정서(第一)」, 77~78쪽 ; 《조선여성》1947년 11월호, 「女盟生活短信(중앙, 평남, 황해, 강원, 함북)」, 65~68쪽).

56)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전호게속-」, 9~15·26쪽.

57)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2차 회의록」, 170~175쪽.

58)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北韓 經濟 統計資料集, 1946·1947·1948년도》 20~21쪽.

여맹의 맹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7년도에는 약 100만명에 이르렀다.[59]

이처럼 맹원 수와 조직의 양적 확대를 이룬 여맹은 조직 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여맹의 조직적 강화는 1947년 7월 맹증수여사업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맹증수여사업은 맹원들에게 정식 맹원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맹원증'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당시 북한 지역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말부터 선거를 실시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중앙정권기관을 수립했다. 여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향후 수립될 통일 정부의 기본 토대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한다는 노선을 유지했다. 한편 1947년 초 미국과 소련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논의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여맹 중앙위원회는 1947년 5월 11일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맹증수여사업 실시를 가결했다. 회의에서 여맹 위원장 박정애는 1947년 2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 제1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60] 그는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이 다시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동세력을 소탕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책과 과업을 제때 실행하기 위해 여맹 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맹원들을 질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직 체계를 강화해야 했다.[61] 여

---

59)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60) 이처럼 국제민주여성연맹 회의 참석 결과 등 국제활동을 먼저 보고하고 이를 계기나 명분으로 삼아 국내에서 여맹의 향후 활동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여맹 활동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서는 2장 3절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61) 북한에서 '당증수여사업'이 당 내에 있는 '불순분자'를 제거하여 당 대열을 강화하고 당 내의 사상통제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서동만, 2005 앞 책, 195~196쪽), 여맹의 맹증수여사업은 조직의 질적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 중 하나였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맹증수여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1946년 5월 맹원 심사 및 맹증 교부사업을 결정했으며, 1947년 2월 맹원 재

맹 중앙위원회는 1947년까지 맹원증을 교부하고 맹원 통계를 정확히 할 것을 결정했다. 맹원증 교부 사업 준비를 위해 7월 1일까지 각도확대위원회를 소집할 것이 중앙조직부장과 각도위원장에게 위임되었다.[62] 7월 1일에 각 도 여맹 조직부장은 회의를 개최해 사업 준비를 토의했으며, 이후 맹증수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63]

여맹은 사업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원인 '유령맹원'을 걸러냈으며,[64] 18세부터 61세까지의 성인 여성으로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제시했다.[65] 1946년 말까지도 신의주시 여맹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8세 이하 여성들을 청년을 망라한 사회단체인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으로 돌릴 것이 지적되었던 것을 고려하면,[66] 1947년에 들어서야 가입 대상자에 맞는 맹원이 규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맹원의 임무로서 맹비 납부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조직의 재정을 함께 강화하고자 했다.[67] 무엇보다 맹원 개개인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의 사상적 통일을 강조했다. 간부들은 맹증 수여를 위해 맹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색분자를 철저히 숙청"할 의무가 있었다.[68]

등록과 맹증 징수 사업을 실시해 초급단체 내 '불순분자'를 퇴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맹원 확장을 추진한 나머지 조직 강화를 병행하지 못한 점이 비판되었다(곽채원, 2014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 조직, 당과의 관계,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7(3), 15~22쪽).

62)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제五차 중앙위원회 決 정서(第一)」, 77~78쪽.

63) 《민주조선》 1947년 7월 3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12, Korea Data Project, 681쪽에서 재인용).

64) 중앙녀맹 조직부장, 《조선녀성》 1948년 9월호 「맹증 탄 녀성의 자각」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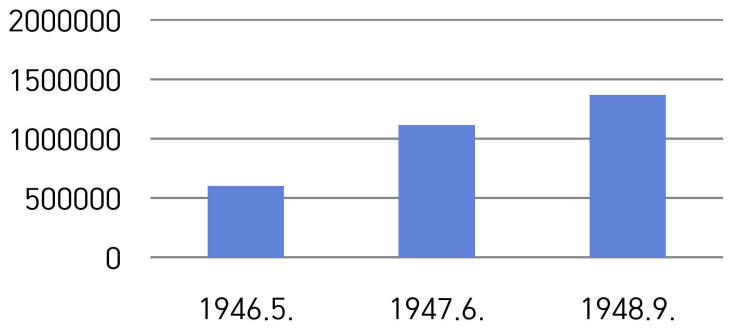
65) 이금순,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맹증받은 맹원의 임무」, 56~57쪽.

66) 국사편찬위원회, 1998 《북한관계사료집》 30 「신의주시당의 부녀사업 협조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서 1946년 12월 27일)」 90~93쪽.

67)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에 따르면, 맹비는 1년을 4반기로 나누어 매 반기 첫째달 10일전까지 징수해 둘째달 15일까지 중앙에 완납해야 했다(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맹비의 액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제군의 경우 맹원당 1원씩 받고 있다. 1948년 10월부터 2원으로 인상하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 상부의 허가 아래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액수가 정해졌던 것 같다(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19차 회의록」, 216~218쪽).

맹증수여사업의 핵심은 질적 정비였지만, 사업 과정에서 여맹은 비(非)맹원인 여성들에게 사업의 의의와 조직 체계를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새롭게 조직에 유입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맹원 수도 소폭 증가하여, 사업 시작 전인 1947년 6월 1,114,691명이었던 맹원 수는 11월 맹증수여사업 총결시 1,182,525명이었다. 당시 맹원의 성분 구성 비율은 농민여성 73%, 노동여성 7%, 교원·사무원 1%, 기타 가정부인 19%로, 농민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69] 맹증수여사업이 종료된 이후 정비된 체계를 기반으로 여맹은 조직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었다. 맹원 수는 상승세를 보여 1948년 2월 1일 1,369,188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가입 대상 여성 전체의 69%에 해당했다.[70] 맹원 수 증가 추이와 성분별 그래프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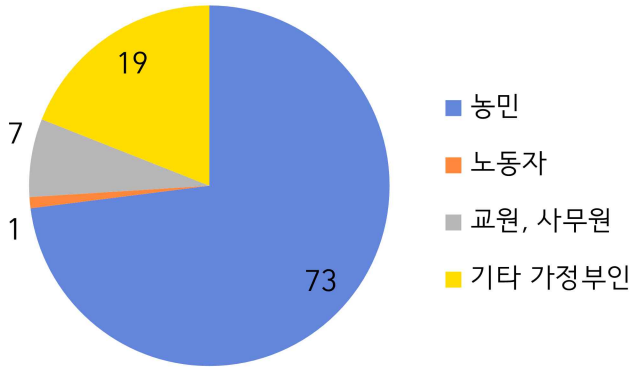
[그림 1] 맹원 수 변화



출전: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 북조선 소련민정국, 1948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제1권 정치편.

68) 이금순,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맹증받은 맹원의 임무」, 56~57쪽.
69)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70) 북조선 소련민정국, 1948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제1권 정치편, 52쪽. 해당 자료에 대한 해제는 '전현수, 2018 〈북한 주재 소련민정청 3년사〉 《복현사림》 36'을 참조하라.

[그림 2] 1947년 11월 맹원 성분(기준: %)



출전: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각 행정단위에 설립된 여맹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여맹 조직 체계는 1948년 중반 변화를 겪었다. 전술하였듯이, 여맹 조직은 '여맹 중앙위원회 → 도 여맹위원회 → 시·군 여맹위원회 → 면 여맹위원회 → 리(동) 여맹위원회 → 반'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여맹의 기본적 사업 단위는 리와 반으로, 리와 반 단위 여맹 조직은 '초급단체'로서 여성 대중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이들을 각종 사업에 추동할 의무를 지녔다. 대중과 직접 교류하는 단위인 만큼 여맹 지도부는 여맹 사업의 기본으로서 초급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46~1947년도에 여맹 지도부가 리와 반 단위에 여맹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자체에 집중했다면, 1948년도 들어서는 조직된 여맹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8년 중반 면 여맹위원회의 해소 문제가 대두했다.

여맹 중앙위원회는 제3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면 여맹위원회의 해소와 면 책임지도원 조직을 결정했다. 여맹 중앙위원회는 리와 반 단위 초급단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 초급단체 조직과 지도를 위해 면 여맹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초급단체 조직이 어느 정도 확립된 현 시점에서 면 여맹위원회가 제대로 지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면 여맹위원회가 시·군 여맹위원회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초급단체에 전달할 뿐, 초급단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맹 중앙위원회는 면 여맹위원회를 해소하고 이를 대신해서 시·군 여맹위원회가 직접 각 면에 책임지도원 한 명을 주재시키도록 했다.[71]

제38차 상무위원회가 정확히 언제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강원도 인제군 여맹 당조 제12차 회의록에 군에서 각 면에 지도위원을 한 명씩 파견하니 면 위원장은 이들을 흡수하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1948년 4월 19일에 개최된 회의이니, 적어도 1948년 4월 즈음에는 면 책임지도원이 이미 조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2] 면 여맹위원회의 해소는 두 달 뒤인 6월 4일 제14차 회의록에서 등장한다. 인제군 여맹 당조는 상급 당과 중앙여맹의 지시에 의거해 면 위원회를 해체하고 면 위원회 사무를 면 책임지도원에게 인계할 것을 결정했다.[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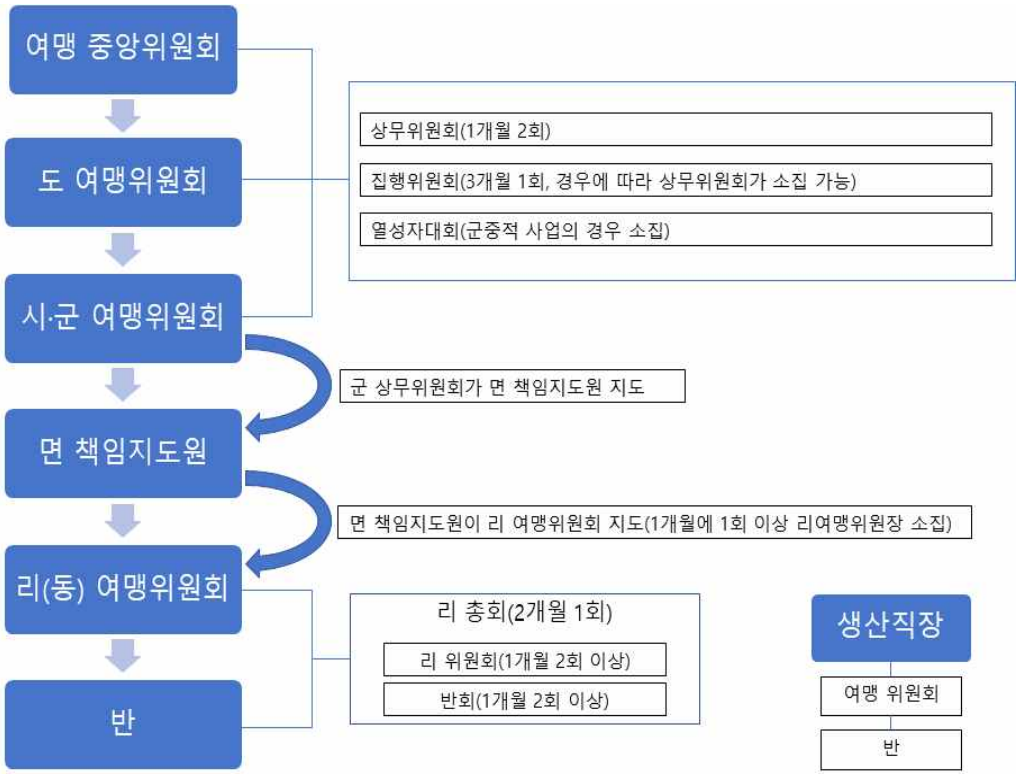
면 책임지도원 제도 실시 이후 여맹 조직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이 있다. 해당 자료에 정확한 작성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면 책임지도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48년 중반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요강에는 회의제도, 사업계획서 작성, 하부지도검열, 맹원조직 절차, 맹비 및 맹증 관련 규정 등과 관련한 세세한 조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면 책임지도원의 역할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두고 있다. 이 지도요강을 토대로 여맹 조직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처럼 1948년 중반부터 여맹 조직은 '여맹 중앙위원회 → 도 여맹위원회 → 시·군 여맹위원회 → 면 책임지도원 → 리(동) 여맹위원회 → 반'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재확립되었다. 도, 시·군, 면 단위 여맹위원회는 1개월에 2회씩 정기적으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상적으로 사업을

71) 정분주, 《조선녀성》 1948년 6·7월호, 「녀맹면위원회해소와 면책임지도원의 역활」, 15~16쪽.
72)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12차 회의록」, 196~198쪽.
73)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14차 회의록」, 201~203쪽.

처리했으며, 집행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소집되었지만 상무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열성자대회는 군중적 사업의 경우에 소집되었다.[74]

[그림 3] 면 책임지도원 제도 이후 여맹 조직 체계



출전: 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을 토대로 재구성.

상부 상무위원회는 하부 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검열할 의무가 있었다. 면 책임지도원의 경우 시·군 상무위원회가 직접 교양했다. 면 책임지도원 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 교양사업에 있었다. 리 여맹위원장은 반을 이끄는 반장을 포함해 2개월에 1회씩 리 총회를 가졌는데, 리 위원회나 반은 결정서를 따로 채택하지 않고 군 단위의 결정서를 집행했다. 따라서 군 단위의 결정을 하부 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여맹 사업의 관건

74) 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이었다. 면 책임지도원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방법을 연구해 초급단체 사업을 지도하는 중간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예를 들어, 면 책임지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리 여맹위원장을 소집하고 때때로 리와 반 회의에 직접 참가해 이들을 지도해야 했다. 또한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사업 집행을 기록해야 했다.[75]

이처럼 상부 여맹은 면 여맹위원회가 사무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지시 전달만 할 뿐 제대로 하부 단위 조직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면 책임지도원 개인을 통해 초급단체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즉 면 단위 여맹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상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개인 활동가를 통해 하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자료상으로는 면 여맹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실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기에서 면 여맹위원회의 해소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면 책임지도원 제도를 통해 상부 여맹위원회의 하부 통제력이 보다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면 책임지도원이 조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상부 여맹은 면 책임지도원을 교양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군 여맹 상무위원회는 매월 한번씩 면 책임지도원에게 사업 방식 등을 강습시킴으로써 이들을 중간 활동가로서 교양할 의무가 있었다.[76] 이로써 면 책임지도원을 통해 시·군 여맹 상무위원회의 지시를 리와 반 단위 초급단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각 행정단위 외에도 생산직장과 생산직장 사택, 각종 기관 내에 여맹위원회와 여맹반을 조직할 수 있었다. 1948년 9월 기준 여맹 산하에는 6개의 도위원회, 13개의 시위원회, 89개의 리위원회, 34개의 광산위원회, 38개의 공장위원회, 122개의 기관위원회, 14,226개의 농촌위원회와 86,474개의 초급단체들이 있다고 보고되었다.[77] 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의 맹원, 반은 5명 이상의 맹원으로서 조직될 수 있었는데, 생산직장

75) 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76) 중앙녀맹 문화교양부, 《조선녀성》 1949년 신년호, 「동기교양사업을 더일층 강화하자」, 31~33쪽.
77) 북조선 소련민정국, 1948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제1권 정치편, 52쪽.

에는 맹원 수가 많다 해도 하나의 위원회만 두고 그 아래 반을 둘 것이 규정되었다. 맹원 1,000명이 넘는 생산직장은 19~21명의 위원회가, 그 이하는 11~17명의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생산직장 사택 내 여맹반은 해당 생산직장 여맹위원회에 속해 지도를 받았다. 반대로 사택 여맹위원회가 있고 생산직장에는 여맹반이 있어 생산직장 내 여맹반이 사택 여맹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사택 여맹위원회 명칭을 생산직장 여맹위원회로 했다.[78]

북한에는 노동자와 사무원을 망라하는 사회단체로 '북조선직업동맹(이하 '직맹')'이 있었는데, 생산직장 내에는 직맹과 여맹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여성》은 생산직장 방문기를 종종 지면에 실었는데, 평양철도공장 방문기에 따르면 한애롱이라는 인물은 공장 내의 직맹과 여맹 모두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79] 생산 직장 내 여맹은 사업에 따라 직맹에 속해 움직였으나 직맹의 하부단위라기보다는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강원도 원산시 석면제작소는 정치학습회를 진행할 때 생산직장 여맹원들을 직맹 학습회에 소속시켰으나, 여맹의 특별학습회를 조직하기도 했다.[80]

한편 이처럼 여맹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은 여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당은 중앙정권기관으로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책과 사업을 방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8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추동해 정권기관의 정책 집행을 도왔다.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으로 1946년 8월 창당된 북조선로동당은 당 내 하부 부서인 '부녀부(부녀사업부)'를 통해 여맹 사업과 조직을 방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초기 부녀부의 여맹 사업 지도는 많은 결함을 지녔다. 일례로, 1946년 12월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당이 여맹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78) RG 242,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79) 정은주, 《조선녀성》 1948년 쏘련군대 환송기념 특집호, 「녀성로동자를 키운 쏘련기사들」, 48~50쪽.
80) 김영수, 《조선녀성》 1949년 5월호, 「녀맹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강원도 녀맹교양사업진행정형을 보고」, 50~53쪽.
81) 김광운, 2003 앞 책, 436~438쪽.

여맹원들이 북조선로동당이 아닌 다른 당에 가입하는 현상이나 부녀부와 여성군중이 괴리되어 있는 점 등을 비판했다.[82]

당 내 부녀부와 여맹 조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당 부녀부장 조영은 평안남도 양덕군당 부녀부장이 여맹을 부녀부의 하급조직으로 취급하는 점을 비판했다. 당은 사회단체를 영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를 당의 하부 단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 사업과 여맹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군중들 역시 "부녀부는 강한 것이고 여맹은 약한 것으로 생각하여 결국에는 부녀부는 무엇하고 여맹은 무엇하는 것인지 구분 못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83]

이러한 혼란은 1946년 말~1947년 초 면과 리 단위에 여맹 조직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던 시점에, 당 부녀부가 여맹 조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 부녀부가 여맹 조직 형성과 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맹을 별도의 단체가 아닌 부녀부의 하부 조직처럼 대했던 것이다. 일반 군중들 역시 부녀부와 여맹의 역할을 분리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초기 여성 활동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어느 정도 기인했다.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당 부녀부장 조영이 제1차 대표대회 당시 여맹의 중앙지도기관에 선출되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당의 부녀부와 여맹 지도부의 인적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이 부녀부와 여맹을 혼동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부녀부에 대한 당 전체의 방조가 부족한 점과 부녀부의 계획적이지 않은 사업 방식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84] 결과적으로 북조선로동당 부녀부는 명확한 체계나 기준을

---

82) 국사편찬위원회, 1998 《북한관계사료집》 30 「신의주시당의 부녀사업 협조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서 1946년 12월 27일)」 90~93쪽.

83) 北朝鮮勞動黨 平安南道黨 婦女事業部長 趙英, 《로동신문》 1947년 1월 18일자, 「平南陽德郡黨 婦女事業에對하여」.

84) 국사편찬위원회, 1998 《북한관계사료집》 30 「신의주시당의 부녀사업 협조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서 1946년 12월 27일)」 90~93쪽 ; 北朝鮮勞動黨 平安南道黨 婦女事業部長 趙英, 《로동신문》 1947년 1월 18일자, 「平南陽德郡黨 婦女事業에對하여」.

가지고 여맹 사업을 지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여맹이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초 '당조(黨組)' 설립을 계기로 여맹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당조란 당이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을 지도하기 위한 기구로, 해당 기관의 당원들이 기관 내에 조직했다.[85]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2월 7일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각급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등 선거를 통해 책임자를 뽑는 기관에 당조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86] 여맹에 처음으로 북조선로동당의 당조가 설치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인제군 여맹의 경우 1947년 4월 12일에 당조가 설립되었다. 인제군의 사례를 통해 보면 당조는 여맹의 일상적 사업을 집행했던 상무위원회 내에서 구성되었으며, 여맹 위원장은 당조 위원장을 겸했다. 당조는 상무위원회 회의 전에 당조 회의를 열어 안건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87]

여맹 내 당조는 부녀부와 달리 여맹 사업을 지도하는 기초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조의 설립이 곧 당조가 순조롭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서동만은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내 당조가 설립됨으로써 '당=국가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당이 사회단체를 통제했다고 평가했다.[88] 그러나 인제군의 사례를 통해 보면, 당시 여맹 당조가 여맹 사업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여맹 당조가 상무위원회 내에서 구성된다고 해서, 당조원이 여맹을 이끄는 간부 전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일례로, 1947년 7월 1일 여맹 당조 제3차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인제군 여맹위원회 부위원장은 북조선로동당 당원이 아니므로 당조원이 될 수 없었다.[89] 상무위원회 전 당조 회의를 통해 안건을 미리 논의한다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85)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72~73쪽.
86) 서동만, 2005 위 책, 243쪽.
87)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1차 회의록」, 168~169쪽.
88) 서동만, 2005 앞 책, 243~249쪽.
89)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3차 회의록」, 175~178쪽.

1949년 10월 5일 여맹 당조 제29차 회의록에 따르면, 인제군 여맹 당조가 당조회의를 수시로 하지 않고 당적 과업을 망각했다는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시기까지도 여맹 당조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90]

서동만은 1948년 3월 27~30일에 열린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내 부서로서 '부녀부'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그 주된 이유가 사회단체 내 당조 설치에 있다고 주장했다.[91] 여맹 당조가 부녀부를 대신해 여맹 사업을 장악하려는 지향성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당시 북조선로동당이 당조를 통해 여맹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의 통제 하에 있는 사회단체였다는 여맹에 대한 기존 연구의 공통된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시기 여맹은 당의 통제 하에 있기보다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 3]과 같은 자체적인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상의 여맹 조직 확립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초기 여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창설하고 일반 맹원을 모집하는 것과 하부 단위에서 조직을 이끌 중간 간부를 교양하는 것에 집중했다. 양적으로 조직을 확대한 여맹은 1947년 중반 맹증수여사업을 통해 질적인 강화를 꾀했다. 이후 1948년 중반 면 책임지도원 제도를 통해 리와 반 단위 초급단체 사업을 강화하고자 했다. 여맹은 면 책임지도원 체제 이후 확립된 조직 체계를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이러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여맹은 각종 사업을 수행했다. 다음 장에서는 여맹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90)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29차 회의록」, 259~261쪽.

91)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48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 회의록》(서동만, 2005 앞 책, 244쪽에서 재인용).

二.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활동

1. ‘민주개혁’ 지지와 선전교양사업

기존 연구는 대체로 여맹을 여성 대중의 이익과 자발적 참여를 담보하지 않는 ‘정치적 동원기구’로 평가했다. 이때 기존 연구는 ‘동원’의 개념을 여성 대중의 자발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방식의 동원으로 전제했다.[92] 그러나 당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원의 개념과 성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은 각종 국가사업에 인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의무 동원’을 규정하면서도 ‘자발적 동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력을 동원한 이들에게 물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선전사업과 경쟁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으며, 그런 만큼 북한의 노력 동원은 자발성과 비(非)자발성이 혼재된 형태였다.[93]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맹 지도부는 여성을 위한 시책이 국가건설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사회단체로서 다양한 동원 사업을 벌였다.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맹 지도부는 이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우선 여맹 지도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소위 ‘민주개혁’[94] 지지를 통해 여성 차별의 물적 토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각종 선전교양사업을 통해 여성을 의식화하고자 했다. 이는 식민지기부터 이어진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자 해방 이후 국

---

92) 손봉숙, 1998 〈조선민주여성동맹 연구〉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 정성임, 2004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한울아카데미.

93)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70~277쪽.

94) 이론적으로 민주개혁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닦는 것이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대중적 지지 기반의 확보를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이전 민주개혁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토지개혁, 농업현물세제 시행, 노동법령 및 남녀평등권법령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김광운, 2003 앞 책, 279~280쪽).

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대중들은 때로는 여맹 지도부의 노선에 적극 호응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공간으로 여맹을 활용했다.

초기 여맹 지도부는 여성 대중들을 독려해 민주개혁을 선전하고 실행하는 사업에 동참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가장 먼저 추진한 시책은 토지개혁이었다. 여맹은 토지개혁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점수의 토지를 분여받음으로써 경제적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95] 여맹은 여성 25,700명을 동원해 토지분여사업 및 해설사업에 참여했다.[96]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 보다 획기적인 사건은 노동법령의 실시였다. 여성의 노동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본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 따라 여맹 지도부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시책을 포함한 노동법령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박정애는 식민지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이 해방 이후 실시된 노동법령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97] 토지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여맹은 여성들에게 노동법령의 의의를 해설하는 사업을 펼쳤다.

무엇보다 여맹은 남녀평등권법령 선전과 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녀부장이자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위원장으로서 박정애는 1946년 7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초안」(이하 '남녀평등권법령')을 보고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박정애의 보고를 듣고 법령초안을 정식법령으로서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98] 7월 23일에 여맹 중앙위원회는

95) 조영순,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농촌여성의 현상보고」, 25~26쪽. 한편 허정숙은 "여성의 생리적 활동의 능력을 고려하야 토지분배에 있어 남자는 18才-60才 여지는 18才로 50才까지의 일정의 게산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한 차별적 조치가 존재했다(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전호게속-」, 9~15·26쪽).

96)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97) 박정애,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로동법령과 여성」, 33~34쪽.

98) 《정로》 1946년 7월 23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4, Korea Data

각급단체 책임자 80여 명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초안에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고 지지결정서를 채택하였다.[9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정식 발포했으며, 9월 14일에는 세칙을 공포했다. 여맹은 46,700여명을 동원해 여성 대중을 대상으로 남녀평등권법령 해설사업을 전개했다.[100] 남녀평등권법령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평등권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결혼과 이혼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다처제와 처첩제를 금지하고 공사창제와 기생제도를 철폐했다. 이혼과 처첩제, 그리고 공사창제는 당대 여성들이 겪고 있던 가장 현실적인 제약들이었다.[101]

축첩의 경우 해방 직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철폐를 적극 외칠 만큼 시급한 현안이었다.[102] 축첩을 하는 이에게 강제위협을 가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해 "좌경의 오류"를 염려하는 논자가 있을 정도였다.[103] 여맹은 축접제는 '양반 중심의 조선 봉건사회'의 산물이자 가정파괴의 원인이며,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104] 그러나 여맹은 어디까지나 법적 제도를 세움으로써 축첩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무러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일개 사회단체로써 남의 가정생활에까지 간섭하여 비극을 일으키는 월권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지방의 여맹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우선 여성 스스로가 자각할 것과 축첩을 금하는 법령이 성

Project, 210~212쪽에서 재인용).

99) 《정로》 1946년 7월 27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4, Korea Data Project, 270~271쪽에서 재인용).

100)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8월호, 「八·一五해방二週年을 맞으며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의 總結과 앞으로의 展望」, 1~6쪽.

101)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저작집》 2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27~328쪽.

102) 제도로서의 축첩제는 1914년 조선민사령이 선포될 때 폐지되었으나 축첩의 관습은 계속 이어졌다(마정윤, 2016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8(3).

103) 김용범,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朝鮮女性創刊을祝하함」, 8쪽).

10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북조선남녀平등권에대한 여성法令해설」, 86~94쪽.

립되도록 “신 정부”[105]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06]

기생제도는 축첩제를 존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자 여성을 “남성의 향락의 대상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완상물”로 전락시키는 악습으로 비판받았다. 축첩제와 마찬가지로,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해 기생제도와 공사창제도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여맹 중앙위원회는 기생 출신 여성들의 생활을 위해 당분간 국가가 간단한 기술 양성소나 이들을 수용할 기관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령 시행 이후 기생 출신 여성들의 생활대책에 관심을 가졌다.[107] 몇몇 지역의 여맹은 실제로 좌담회 등을 개최해 기생 출신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남녀평등권법령 이후의 생활대책을 논의했다.

평안남도여맹에서는 해방 1주년 기념 좌담회를 열고 60여 명의 기생을 초청해 의견을 물었다. 기생들을 대표한 우채관이라는 인물은 “기생이란 이름은 떼어줌은 고맙고 바랬던 것이나 우리에게 부닥친 생활난이 문제”라며 여맹의 참다운 지시가 내려진다면 이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다.[108] 황해도여맹에서도 기생 및 여맹 간부 30여명이 모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생 출신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생활의 곤란으로 인해 이 일을 하게되었음과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령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맹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선여성》의 기자는 “늙은 부모 동생들 아버지 없는 어린애 이들의 수많은 가족의 생활에 전 책임을 질머진 가없은 어린 풀닢같은 이 동무들에 앞길을 위하여사 회는 좀더 따뜻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여주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느꼈다는 감상을 남겼다.[109]

좌담회에 참석한 여맹 관계자들은 기생 출신 여성들이 호소한 의견에

---

105)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던, 당시 임시 정권기관이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6) 《정로》 1946년 4월 27일자, 「女性同盟擴大會 金日成將軍께書狀」.

107)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북조선남녀平등권에대한 여성法令해설」, 86~94쪽.

108) 《정로》 1946년 8월 21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4, Korea Data Project, 627쪽에서 재인용).

109) 이염현,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黃海道巡廻記」, 54~59쪽.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평북 만포 여맹에서는 남녀평등권법령 실시일을 기념하여 7·30 공장을 설립해 직공 전부를 기생 출신 여성들로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여맹 차원에서 기생 출신 여성들의 생활난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다. 다만 기생 출신 여성들이 직업여성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를 소개하며 남녀평등권법령의 의의를 선전하곤 했다.[110]

여맹 지도부는 남녀평등권법령을 "여성운동의 성과"[111]이자 "조선을 봉건적 적재에서 리탈하야 민주주의조선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적 전환"[112]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남녀평등권법령은 여성 개개인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로》 1946년 8월 7일자는 남녀평등권법령 실시에 대한 각계 여성들의 반응을 실었는데,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가정부인 김경순은 기생제도가 인신매매와 다처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고 남자를 타락시키는 제도였다며 그 철폐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생 출신 김천명은 과거의 생활에서 깨끗이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도 "기생제도를 철폐한다니 어쩐 일인지 가슴이 서늘해지며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나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기생 출신 여성에게 기생제도 철폐는 일차적으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 문제였다.

남성, 특히 지식인층 남성의 각성을 촉구한 의견도 있었다. 교원 명영숙은 법령의 완전한 실시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식이 철저히 개정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지식인층 남자들의 각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13]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 의견은 《조선여성》에도 등장하는데, 평원고무공장 직공인 안옥례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슴들인다면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생활하는데있어서 법령만 가지

110)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7월호,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一주년을 맞이하며 朝鮮女性의 課業」, 一~十쪽.
111)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편집후기」, 107쪽.
112)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북조선남녀平등권에대한 여성法令해설」, 86~94쪽.
113) 《정로》 1946년 8월 7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4, Korea Data Project, 421~422쪽에서 재인용).

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까지 여자에게 남녀평등으로 생각하여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살림하여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114] 이들은 법령 실시에 기쁨과 감사를 표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법령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법령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맹 관련 인사들은 보다 시혜적인 시선에서 남녀평등권법령 실시를 바라보았다. 평남도여맹 백경제와 조선여성사 오응실은 남녀평등권법령을 '민주역량의 발전'이나 '민주주의 정치'와 연관지어 해석했다. 오응실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전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고, 백경제는 법령 실시의 공을 소련군대와 김일성장군에게 돌리며 민주조선 건설에 여성이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여맹 중앙위원회의 인식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맹 중앙위원회는 남녀평등권법령에 대해 발표한 선언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조건 하에서만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가 가능했음을 여성들이 인식하고, 여맹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여 조선의 완전 독립과 민주공화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115]

여맹 지도부의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녔다. 당시 남녀평등권법령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식민지기와 비교해서도, 여성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시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동시대 남한의 상황과 비교해서도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은 북한 여성의 생활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남한에서는 1946년 9월 미군정이 보건후생부의 하위 조직이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로서 부녀국을 신설했다. 설치 이후 부녀국은 '조선부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주로 교육과 계몽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공창제도 폐지법안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공포된 것은 1947년 11월 이후였

114)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남녀平등권法令을보고 각계여음」.

115) 《정로》 1946년 8월 9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4, Korea Data Project, 388~391쪽에서 재인용).

다. 폐지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48년 2월 14일이었으니, 북한의 여성대책은 남한에 비해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116]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해 여성 차별의 제도적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본 여맹은 여성들의 교양과 의식화에 주력했다. 여맹은 1946년 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기한 "전 인민적 차원의 건국정신 총동원과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인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호응해 여성들이 '봉건잔재'로 일컬어지는 '낡은 사상의식'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여맹 지도부는 여성들이 극복해야 하는 대표적인 봉건잔재로 '문맹'과 '미신'을 지목했다. 문맹과 미신은 당시 북한 지역의 전 인민에게 적용되는 문제였으나, 여맹 지도부는 식민지기 교육의 경험이 적던 여성들이 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117] 실제로 해방 직후 북한의 문맹자 수는 약 230여만명이었는데,[118] 그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해방 직전 여성 문맹자의 총 수는 1,750,524명에 달했다.[119] 여맹 위원장 박정애는 "봉건의 해독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 여성들은 과거의 모든 봉건적 유습을 청산하기에 더한 총노력하여야 할 것"을 역설했다.[120]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연장선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는데, 결정 113호를 토대로 "1946년 11월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 만 1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문맹자들을 의무적으로 취학시켜 매일 두 시간 이상 교육할 것"을 선포했다.[121] 여맹은 북조선임시인민위

---

116) 황정미, 2002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부녀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8(4).

117)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1944년 5월 1일 기준 간이국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조선인 여성 6,526,860명 중 교육기관(대학교, 전문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서당)에 취학하지 않은 인구 수가 6,204,163명으로, 약 95%에 달했다(통계청,「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4406&conn_path=I3).

118) 김재웅, 2018 앞 책, 60쪽.

119) 김경자, 《조선녀성》 1948년 12월호, 「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에 있어서의 녀성의 임무」, 28~30쪽.

120)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은 愛國的人民運動이다」, 6~7쪽.

121) 김재웅, 2018 앞 책, 역사비평사, 54~61쪽.

원회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여성들의 문맹 상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문맹퇴치운동은 문맹자가 많았던 농촌지역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여성》에는 간간이 기자의 지역 방문기가 실렸는데, 그 중 강원도 이천군 방문기는 하부 지역 단위에서 문맹퇴치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이천군 학봉면에 이르러 기자는 김수내라는 중년 농촌 여성의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김수내는 글자를 쓸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써보이며 "이제는 여자도 아무리 촌에 있다해도 배워야해요 꼭 배워야해요 몰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야요 우리나라 찾은 다음에야 우리글 배우는 밖에야..."라는 학구열을 내비쳤다. 한편 이천군 방장면의 사례는 여맹을 통해 하부 지역 단위에서 중간 활동가로서 자각하고 성장했던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방장면 여맹위원장은 방장면의 여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맹 간부였지만, 그 자신이 해방 이전 완고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자였다. 그는 성인학교가 생기자마자 곧 입학하여 여맹 일을 하는 동시에 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면 내 여성들이 글을 배우러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방장면의 다른 여성들은 평양에서 온 기자에게 "김일성장군을 만나뵈었느냐", "우리 딸도 언제 저렇게 혼자서 다니게 될까"라며 선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농촌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열망에서 여성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차츰 수용하고 있었다.[122]

글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도 각종 농사일과 가정일에 바쁜 여성들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전히 "뭐 아라야지요"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으려는 여성들도 많았다.[123] 이에 여맹은 반 단위의 초급단체를 동원해 문맹자의 집 벽에 한글교재를 인쇄해 붙이거나 출석율이 낮은 맹원의 집 앞에서 문맹퇴치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일상적 감시를 통해 성인학교 출석률을 높였다. 또한 글을 배워 김일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이계산과 같은 인물의 미담을 선전하면서 문맹퇴치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이제 글을 모르는 것은 "자

122) 소연,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農村盟員들의 生活에서」, 41~44쪽.
123) 소연,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農村盟員들의 生活에서」, 41~44쪽.

기개인의 수치"이자 "우리민족의 민주주의 조국창건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124] 그 결과 1947년 7월 기준 여맹원 중 149,617명이 글을 알게 되었으며,[125] 1947년 1년 동안 전체 여성 중 문맹퇴치자 수가 567,726명에 달했다.[126] 1948년 말에 이르면 해방 직전 여성 문맹자 1,750,524명 중 1,610,090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127]

여맹은 문맹과 함께 많은 여성들이 가까이 했던 미신을 타파하고자 했다. 여맹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미신을 가정에서 일소하고 과학지식과 건국사상을 함양함으로써 문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맹은 지방마다 미신타파운동을 전개하여 굿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사당 등을 불태우고 압수하였다. 여맹은 이 운동에 맹원뿐 아니라 무당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128] 일례로, 부용동의 리여맹위원장은 동리 여성들이 "내나라를 찾고 토지까지 분여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지어 미신같은것은 정말 해무맹냥한것이라고 깨닷고 녀성동맹에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나오고 장구 꽹가리는 구라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129] 함남도 북청군 후창면 오편마화 동리에서는 이정월이라는 무당이 리녀맹 총회에서 자아비판을 한 뒤 무당용구 일체를 처분해달라고 청했으며, 100년 넘게 대대로 물려오던 성주 당지를 불태워버린 여맹원을 필두로 동리 전체의 여맹원들이 전부 이에 응한 경우도 있었다.[130] 여맹은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신타파운동의 성과를 선전했다.

---

12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8년 1월호, 「문맹퇴치사업과 여성」, 8~11쪽.
125) 국사편찬위원회, 1998 《북한관계사료집》 30 「남녀평등권법령 1주년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 결정서 1947년 7월 3일)」 231~232쪽.
126)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8년 1월호, 「문맹퇴치사업과 여성」, 8~11쪽.
127) 김경자, 《조선녀성》 1948년 12월호, 「문맹퇴치 및 성인재교육에 있어서의 녀성의 임무」, 28~30쪽.
128) 이염현,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黃海道巡廻記」, 54~59쪽.
129) 정은주,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번영하는 농촌 부용동을 찾어서」, 53~56쪽.
130) 편집부, 《조선녀성》 1948년 9월호, 「녀맹단신」, 45~48쪽.

한편 북조선로동당의 여맹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미신은 문제가 되었다. 북조선로동당 소속 여맹 지도부는 무속뿐 아니라 종교 전반을 미신으로 인식했다. 박정애는 여맹이 다른 사회단체보다 종교신자가 가장 많은 단체이며 일부 맹원은 여맹의 간부를 “로동당에 매수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보고했다.[131] 이러한 보고는 천도교청우당원인 맹원들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맹원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1948년 9월 1일 기준 로동당원 5.9퍼센트, 민주당원 1.3퍼센트, 청우당 3.3퍼센트, 비당원 89.5퍼센트로 로동당원 다음으로 청우당원이 많았다.[132] 1948년 말 여맹 당조가 “미신에 빠진 녀성들”이 여맹 학습회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청우당원의 집을 짓는데 동원되어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133] 이러한 사례들은 일차적으로 북조선로동당이 여맹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여맹 지도부의 여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여맹은 여성들이 봉건사상을 청산하는 대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함양해 국가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맹은 국가건설을 위해 여성들이 생산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의 이중 역할 요구는 여맹 기관지 《조선여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담론이었다.[134] 우선 여맹은 남녀평등권법

---

131) 국사편찬위원회, 1982 《북한관계사료집》 1 「북조선 로동당 제二차 전당대회 회의록」, 402~403쪽.

132) 북조선 소련민정국, 1948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제1권 정치편, 52쪽.

133)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134) 북한의 여성정책과 여성상을 다룬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생산과 가정의 영역을 모두 도맡아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혁명적 어머니’ 상이 주로 소련의 여성상을 수용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했다(박영자, 2005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1) ; 김재웅, 2015 〈해방된 자아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정책의 굴절(1945~1950)〉 《한국사연구》 170 ; Suzy Kim, 2010 "Revolutionary Mothers: Women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2(4), pp.742-767). 그런데 수지 김(Suzy Kim)은 북한에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소위 ‘혁명적 어머니’ 상이 추구된 배경을 소련의 영향뿐 아니라 일제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전쟁 당시

령 등 개혁을 통해 '해방'된 여성들이 이전과 달리 "로동을 천시하던 봉건적인 인습"에 매여 집안일에만 매진하지 말고 노동자로서 생산 일선에 진출하라고 촉구했다.[135] 그러나 동시에 여맹은 여성들이 육아와 가정일을 방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136] 가사일과 직장을 병행하라는 요구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라는 딜레마를 야기했다. 《조선여성》의 논자들은 '과학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이 최대한의 능율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37] 문학인 안함광[138]은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생활을 수학적으로 구성하지못하며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139]

다른 한편 여성들은 가정을 꾸림에 있어 미신과 대비되는 '과학적인' 상식을 함양해야 했다. 여맹 지도부를 비롯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를 민족의 장래를 번영하게 하는 조건으로 생각했다.[140] 그러므로 여성들이 아이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에 근거해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맹 기관지 《조선여성》은 여성의

여성동원의 유산에서 찾는다. 그의 분석은 식민지기 유산을 토대로 해방 직후 북한의 여성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식민지기부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에게 비판받았던 개념으로, 해방 직후에도 '현모양처' 개념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수지 김의 주장대로 근대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여성을 동원하고자 한 논리는 동일하나, 여성의 사회진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현모양처' 개념과 달리 북한 정권과 여맹 지도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따라서 해방 직후 북한의 여성상은 소련의 여성상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35) 《조선여성》 1947년 6월호, 「勞動法令發布以後의北朝鮮의勤勞女性」, 1~5쪽.

136) 박정애,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解放八一五일주년을마즘」, 73쪽.

137) 주정순, 《조선여성》 1947년 9월호, 「職場을가진主婦의生活設計」, 29~32쪽.

138) 식민지기 좌파 문필가로 활동했으며, 해방 이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1서기장, '북조선문학동맹' 위원장 등을 맡았다(장사선, 2000 〈안함광의 해방 이후 활동 연구〉 《국어국문학》 126, 355~356쪽).

139) 안함광, 《조선여성》 1947년 3월호, 「犧牲的인 奉公心(특히 여성에게 주는말을 겸하여)」, 14~18·46쪽.

140) 《조선여성》 1947년 7월호, 「民主改革과 男女平等權法令」, 1~3쪽.

교양지를 자처한 만큼 다양한 교양재료와 학습교재를 게재했는데, 가정란이 고정란으로 있어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의학상식부터 가정일에 대한 세세한 상식을 정기적으로 소개했다.[141] 이러한 글들은 여성들이 자원을 절약해 낭비를 줄이며, 의학·과학지식을 학습하고 이에 근거하여 육아를 하고 가정일을 책임져야 함을 역설했다.

민주개혁 선전, 그리고 봉건사상 청산과 새로운 가치관의 함양에 집중했던 초기 여맹의 선전교양사업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애국주의 사상 고취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여맹은 면 책임지도원 제도를 통해 강화된 초급단체 체제를 토대로 맹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 집중했다. 정치교양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맹원들의 애국주의적 사상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여맹의 정치교양사업은 1948년 10월 개시되어 12월 말에 완료된 소련군의 철수를 계기로 일층 강조되었다. 미소 양군 철병을 주장하던 소련군의 일방적인 철군 결정은 사회적으로 미군의 대북 침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정치지도자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소련군에게 감사를 표했으나 미군이 남한에 주둔한 상태에서 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142]

북한 정권은 소련과의 친선 및 상호원조를 강조하는 한편 체제 내적으로 인민군을 증강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했다. 수상 김일성은 《로동신문》 1949년 1월 1일자에 게재한 「一九四九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신년사」에서 전체 조선인민이 중앙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국토의 완정과 완전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총궐기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1949년에서 1950년 2개년에 걸친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 특히 섬유공업의 자립적 발전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3]

1월 5일 여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의 신년사를 여맹 사업에 반영하기

141) 주정순,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女性의 生活改革」, 53~56쪽 ; 장정숙, 《조선여성》 1947년 10월호, 「새로운家庭과 主婦」, 33~36쪽 등 다수.
142) 기광서, 2018 앞 책, 530~531쪽.
143) 김일성, 《로동신문》 1949년 1월 1일자, 「一九四九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보내는신년사」.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당시 중앙여맹 문화교양부장 김영수는 섬유공업부문의 증산과 정치교양사업의 강화를 제기했다. 중앙여맹은 여성들이 애국주의적 사상을 함양함으로써 생산증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두 사업은 연계되었다.[144] 중앙여맹은 무엇보다 "민족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격화시키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 실천에 전체녀성들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애국주의적 민주사상으로 고취시키는 동맹교양"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이라고 주장했다.[145]

정치교양사업은 초급단체를 중심으로 학습회를 조직해 여맹이 선정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여맹 문교부는 대중의 실제 생활과 강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학습에 대한 일반 맹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강의 내용을 "어려운 정치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맹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형편,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가정과학이나 아동교육 등 생활전반과 관련된 친근한 문제를 시사문제와 결부시킬 것을 지시했다.[146]

1949년 5월부터는 학습체계가 개편되어 생산직장 내 여맹원들은 직맹 학습회에, 농민을 망라한 사회단체인 북조선농민동맹(이하 '농맹') 소속인 여맹원과 농촌 및 가두의 민청 소속 여성들은 여맹 학습회에 망라되었다. 학습회는 1회 2시간씩 1개월에 2회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여맹은 사실상 농촌과 가두에 있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정치교양 사업을 진행했다. 학습내용과 방식은 반드시 중앙여맹이 제시한 '유일제강'에 근거해야 했다.[147] 유일제강을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고치수매나 면화재배 등의 문제를 취급한 평북 의주군 수진면 대수동 제3학습반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48]

---

144) 생산증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다.
145) 《로동신문》 1949년 1월 7일자, 「二개년경제계획완수에 녀성의전체력량을집결-중앙녀맹에서-」.
146) 중앙녀맹 문화교양부, 《조선녀성》 1949년 신년호, 「동기교양사업을 더일층 강화하자」, 31~33쪽.
147) 김영수, 《조선녀성》 1949년 5월호, 「녀맹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강원도 녀맹교양사업진행정형을 보고」, 50~53쪽.
148) 김도남, 《조선녀성》 1949년 12월호, 「동맹 정치교양사업 강화를 위하여」,

그러나 정작 정치교양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1949년 말에 북조선로동당 중앙에 제출된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여맹 당조 보고서는 여맹 사업의 진행 상황과 내부적 평가를 보여주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1948년 4월 이래로 34,648개의 학습반이 조직되었으나 1949년에는 전체의 28.9%만 운영되었으며, 자강도에는 3.4%, 황해도에서는 5%에 불과했다. 평양시의 경우에도 14%에 그쳤다. 타 지역에 비해 평양시의 학습반 출석률이 높은 이유는 평양시가 수도인만큼 여맹 조직력이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는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학습강사의 수도 4,066명이나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름만 올리고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강사들도 있었다. 여맹 당조는 또한 청우당원 146명이 성천군 강사 명단에 올라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분자"들이 강의를 하는 점을 우려했다. 당조 소속 여맹 지도부가 계획한 대로 정치교양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149] 일부 여맹 간부들조차도 정치교양사업을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150]

여맹의 정치교양사업은 어째서 일반 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일까? 이는 여맹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맹을 포함한 각급 동맹 단체에서 정치교양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여맹 지도부는 정치교양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강사의 수업 준비가 형식적이며 간부의 지도검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151] 이 지적처럼 수업 내용과 질이 일반 맹원들과 대중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실용적이지 않은 정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1개월에 2회씩 정기적으로 학습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일반 맹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여맹 지도부의 의식화 작업에 일방적으로 이끌리기 보다는 각자의 처지에 맞게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11~13쪽.

149)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150) 김도남, 《조선녀성》 1949년 12월호, 「동맹 정치교양사업 강화를 위하여」, 11~13쪽.

151) 김영수, 《조선녀성》 1950년 5월호, 「동맹학습반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29~31쪽.

등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러한 난항에도 불구하고 여맹 지도부는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정치교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업에서도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여맹은 중앙정권기관에 협력하면서 여성 차별의 물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선전교양사업을 벌였다. 우선 여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 특히 남녀평등권법령을 적극 지지하고 선전했다. 여맹은 또한 당대 시급한 여성문제로 여성들의 문맹 상태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동시에 여맹은 여성들이 가정과 생산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함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다른 사회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양사업을 강조하면서 애국주의 가치관 함양에 집중했다. 이와 같은 여맹의 사업에 일반 여성들과 맹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참여했다.

2. 국가사업 참여와 생산성 제고 노력

남녀평등권법령은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서 정치·문화·경제 각 분야로 여성이 진출할 권리를 보장했다. 여맹 지도부는 남녀평등권법령 이후 북한 여성들이 과거에 겪던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성과 동등한 평등권을 획득한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녀평등권법령의 의의와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건설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이미 제정된 남녀평등권법령을 수호하고 이를 전 한반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건설운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북한에서 실시된 민주개혁 결과는 남한의 '반동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남한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맹 지도부는 모든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해방을 이루어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하며 통일국가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152]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여맹 지도부의 논리에 공감하며 국가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생산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여맹 지도부는 여성에게 산업 참여와 재생산 의무 및 가정일의 전담이라는 이중 역할을 요구했다. 이는 일견 여성에게 가정에서 나와 사회로 나아가라는 주장, 그리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에 진출하라는 주장과 모순되었다. 또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일'을 규정하는 이분법적 성별 분업 인식이 유지되었다. 이는 여맹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이자 딜레마로 작용했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여맹의 기관지 《조선여성》에는 "지방소식", "여맹생활단신", "녀맹생

152) 북조선민주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解放된 北朝鮮女性」, 4~8쪽 ;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7월호, 「男女平等權法令 發布 一週年記念日을 마지하며 朝鮮女性의 課業 -남녀평등권법령발포一주년 기념보고제장-」, 一~十 ; 중앙녀맹문화교양부, 《조선녀성》 1948년 6·7월호, 「남녀평등권법령二주년을맞는북조선녀성」, 4~7쪽.

활", "녀맹단신" 등의 제목으로 각 지방 여맹의 활동을 짧게 소개하는 란이 있다. 해당 란은 몇개호를 제외하고는 매 호에 고정적으로 실려있어 이를 통해 여맹의 활동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47년 5월호~1949년 11월호에 실려 있는 여맹의 활동 사례 108건을 추출했다.[153] 물론 모든 호에 이와 같은 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며, 《조선여성》에 실린 활동만을 추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여맹의 전체적인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154] 다만 하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여맹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155] 아래 [표 2]는 이와 같은 1947~1949년 여맹의 활동 사례 108건을 각각 항목별·지역별·행정단위별로 분류해 개수를 표시한 것이다.

[표 2] 1947~1949년 여맹의 활동 사례 분류

항목	수	지역(도)	수	행정단위	수
원호	33	평양시	14	도	15
생산	51	평남	11	시·군	29
수리	6	평북	10	면	9
선전	8	함남	20	리(동)	34
교양	6	함북	20	생산직장	21
회의	4	황해	18		
		강원	15		
합계	108				
비고	평양시는 행정단위상 도로 분류				

출전: 《조선여성》 1947년 5월호~1949년 11월호(1947년 8~9월호, 1948년 11월호, 1949년 3~4, 6~8, 10월호 제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라.

153) 1947년 8~9월호, 1948년 11월호, 1949년 3~4월호, 1949년 6~8월호, 1949년 10월호에는 해당 란이 등장하지 않는다.

154) 이와 같은 분석이 여맹 활동 전반에 대해 신뢰할 만한 통계적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다만 각 지역의 하부 단위 여맹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맹 활동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55) 전체 활동상을 정리한 표는 [부록 2]를 참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여맹 활동 사례는 항목별로 크게 ①군대, 학교, 노동자 등 원호사업(원호), ②농업·공업과 같은 생산사업(생산), ③제방수리, 도로수선 등 수리사업(수리), ④세금징수대 조직 등 국가시책 선전사업(선전), ⑤여맹 내부의 자체적인 교양사업(교양), ⑥여맹의 정기적인 회의(회의) 등으로 나눌 수 있다.[156] 한편 지역별 분류를 보면 평양시를 포함해 각 도 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시는 중앙여맹이 소재하고 있던 만큼 많은 활동 사례가 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행정단위별 분포를 보면 리(동)과 생산직장에서의 활동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위 사례들 중에서는 1947년 6월호에 리(동) 단위 여맹 활동이 처음으로 등장했다.[157] 전술하였듯이, 1946년 말~1947년도 하부 행정단위에 이미 여맹이 조직되었음을 고려하면, 1947년도에는 각 지역 초급단체 단위의 여맹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맹 활동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과 원호사업이다. 여맹의 생산사업은 1947년부터 수립된 '인민경제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산업 각 부문별 생산목표를 제시했다. 여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상무위원회를 열고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완수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이때 면화 등 공업원료 공급, 양잠업과 축산업, 퇴비 장려, 절약 운동 등을 결정했다.[158] 이에 따라 여맹은 퇴비를 운반하거나 시기에 맞게 노력반을 조직해 파종 등의 농사일에 협조했다. 탄광이 있는 지역에서는 석탄이나 광석 운반하는 데 일조했으며, 현물세 납부에 필요한 가마니 등을 제작했다. 여맹은 또한 각종 수리시설 및 제방 공사에 가담했다. 1947년 동안 이앙, 제초, 하천수리공사, 퇴비증산 등의 사업에 381,415명, 1948년도 상반기에는 개간수리공사, 춘기파종, 비료하조, 광석운반 등 부문에서 1,149,232명이, 1949년 상반기에는 공장협조사업에 166,078명, 관개·도로·하천 수리공사

156) 사례들을 분석 및 소개하기 위해 본고가 임의로 설정한 항목과 분류법이다. 그 성격이 항목별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 경우 활동의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 분류했다.

157) 《조선여성》 1947년 6월호, 「地方消息 (咸南, 江原, 平南, 平北篇)」, 45~47쪽.

158)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中央第六次常務委員會 一九四七年度人民經濟計劃完遂에對한決定書」, 4~5쪽.

에 424,832명, 이앙제초사업에 146,233명이 참여했다.[159]

여맹은 이와 같은 사업에 맹원들이 자원적 원칙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했다. 1947년 단천 축항(築港) 공사 사례는 맹원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함경남도 단천군 여맹원들은 흥남 인민공자의 생산과 직결되는 단천 축항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운반했다. 13일 동안 총 764명의 맹원이 사업에 참여했다. 《조선여성》의 논자는 이들이 "나라를 위한 성스러운 마음으로서", 그리고 "남녀평등의 당당한 권리"로 민주조선 건국에 나서고 있다고 묘사했다.[160]

국가사업에 대한 노동력의 동원은 주로 '유상동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유급으로만 맹원들이 동원되는 문제는 여맹 내부에서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곤 했다.[161] 그러나 유상동원 방식으로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그 보수를 다른 국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단천군 요암리 여맹원들은 명태 속을 따는 작업을 하고 받은 보수를 리 여맹과 문맹퇴치위원회 기금으로 기부했다.[162]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2구 여맹원들 역시 퇴비운반작업을 하고 받은 사례금을 학교와 보안대에 기부했다.[163]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사업에 참여했던 여맹원들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준다.

원호사업의 경우, 여맹원들은 보안대와 인민군, 노동자, 학생들을 위한 위문품을 제작했으며, 노동력을 제공해 음식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남포시 여맹원들은 남포제련소 노동자들에게 장갑을 직접 제작해 제공했다.[164] 평양시여맹원들은 보안대를 위해 김장을 담가 주었

---

159) 박정애, 《조선여성》 1948년 1월호, 「一九四七년도 여맹 사업총결」, 4~7쪽 ;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 이금순, 《조선녀성》 1949년 11월호, 「동맹창립四주년에 제하여」, 2~6쪽. 동원된 인원 총수는 동원 횟수당 집계된 것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1949년 상반기는 수리공사 5,116회에 424,832명이 동원되었다.

160)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端川築港修築工事에 活躍한 女盟員의 功蹟」, 49~50쪽.

161)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162) 《조선여성》 1947년 6월호, 「地方消息 (咸南, 江原, 平南, 平北篇)」, 45~47쪽.

163) 《조선여성》 1947년 11월호, 「女盟生活短信(중앙, 평남, 황해, 강원, 함북)」, 65~68쪽.

다.[165] 강원도 영천군 진곡면 은대리 여맹원들 역시 인민군과 보안대를 위한 감장을 담가주는 사업을 벌였다.[166] 또한 각 지역 여맹은 연예회나 음악회를 조직해 노동자를 위로했다. 황해도 송림시 제철공장 여맹원들은 출근길에 공장 노동자들에게 꽃을 주며 격려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167] 이 밖에도 여맹원들은 혁명자유가족학원이나 국영애육원, 양로원, 고아원 사업에 협조했다.

이처럼 여맹이 벌인 원호사업은 대부분 지금까지 '여성의 일'로 인식되었던 분야였다. 실제로 여맹 지도부는 건국의무노력동원지시가 전달됐을 때 남편과 아들이 동원되도록 권고하고 동원에 필요한 음식·의복·가구 준비 등 "뒷일"을 여성들이 도맡아 하라고 제안했다.[168] 현물세 납부시에 농민을 위해 냉수를 가져다 두는 등 "접대"하는 것 또한 여성의 일이었는데, 이러한 "접대"는 감정적인 노동을 포함했다. 이러한 여맹 지도부의 요구에 성실히 호응한 여성들도 있었으나,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인제군 여맹 당조는 인제면 상동리 여맹원들이 "농민들을 위안하는" "접대에 대한 의의"를 망각하고 냉수만 떠다 놓았음을 비판했다.[169] 이러한 사례는 기존의 성별 분업 인식에 입각한 의무를 여맹원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반증한다.

생산과 원호, 수리, 선전교양 사업 등은 1945~1950년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1948년 9월 정부 수립을 계기로 여맹은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여성들의 생산성을 일층 제고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분야로 여성이 진출할 것과 생필품인 의류의 원료를 생산하는 양잠업을 강조했다. 이는 남북한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이 독자적인 경공업 생산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170] 전술하였듯이, 김일

---

164) 《조선여성》 1947년 7월호, 「地方消息 (咸北, 平北, 黃海, 平南篇)」, 52~54쪽.
165) 《조선여성》 1948년 1월호, 「여맹생활단신(평양시 함북도여맹편)」, 66~67쪽.
166) 《조선녀성》 1949년 신년호, 「녀맹생활」, 60~62쪽.
167) 《조선녀성》 1948년 2·3월호, 「녀맹생활 단신」, 105~115쪽.
168) 김운죽, 《조선여성》 1947년 12월호, 「인민정권을 여성들은 어떻게 받들것인가」, 30~33쪽.
169) 국사편찬위원회, 1986 《북한관계사료집》 4 「북조선 로동당 인제군 여성 동맹 당조 제23차 회의록」, 225~232쪽.
170) 주지하듯이, 해방 직후 경공업 시설은 남한 지역에 편중되었으나, 대형 규모가

성은 1949년을 맞이하는 신년사에서 섬유공업의 자립적 발전을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맹은 공업원료로서 면화 재배와 잠견의 생산을 강조했다. 특히 양잠업은 성별 분업 인식에 따라 주로 '가정에서 하는 일'이자 '여성의 일'로 간주되었고,[171] 그런만큼 여맹은 양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집행하고자 했다.

여맹은 초기부터 양잠 사업을 지도하고 특등 고치를 낸 맹원을 표창하는 등 양잠업을 장려했으나[172] 1948년 중반에 들어가면서 고치의 공동사육과 기술보급을 통해 일층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했다.[173] 여맹 중앙위원회는 1948년 6월 15일 제4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고치수매사업의 의의를 여성군중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 우수한 사업성적을 낸 개인을 표창할 것, 고치수매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각 지방에 간부들을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174] 양잠사업의 모범적 실례로 평가받은 함남 함주군 천원면 여맹의 사례를 보면, 양잠사육반을 조직하여 사업 계획을 세운 뒤, 동리의 농사시험소에게서 양잠 기술을 배워 누에를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5]

이처럼 양잠업에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맹은 1948년도 춘기 양잠 사업 계획량을 초과 완수했다.[176] 평안남도 여맹은 1949년 봄에 생

아닌 직물과 의류를 제조하는 중소 방직공장은 북한 지역에도 식민지기부터 발달되어 있었다. 문제는 직물과 의류의 원료가 되는 면화나 잠견의 공급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최초의 경제계획인 1947년 인민경제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주요 생필품인 의류의 재료를 생산하는 방직공업의 확대 증산을 표방했다(이주호, 2016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학보》 63, 290~299쪽).

171) 박중선, 《조선여성》 1947년 3월호, 「女性은農業增産에 무엇을하여야하는가」, 39~42쪽 ; 《로동신문》 1949년 1월 7일자, 「二개년경제계획완수에 녀성의전체력량을집결-중앙녀맹에서-」.

172) 《조선여성》 1947년 10월호, 「장성하는 咸南 각 지방 여맹事業」, 53~54쪽.

173) 이는 남북한 분단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자립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경공업 정책이 변화한 것과 연관된다. 1948년 10월에 들어가면 내각에 수매국이 창설되어 면화와 잠견 등 공업용 농작물 수매 체계가 완성되었다(이주호, 2016 앞 논문, 299쪽).

174) 김순희, 《조선녀성》 1948년 6·7월호, 「고치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21~22쪽.

175) 김정히, 《조선녀성》 1948년 6·7월호, 「양잠하는 녀맹원들-함주군 천원면-」, 46~49쪽.

산계획의 108.5%를 달성했는데, 이는 작년도 생산계획에 비해 276%가 증가된 양이었다.[177] 여맹은 잠견 외에도 면화 재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여맹 제19차 중앙위원회는 1949~1950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섬유공업부문 목표 숫자 달성을 위해 면포생산사업에 대한 여맹의 과업을 토의 결정했다. 여맹은 주요 면화재배지인 평북, 평남, 황해도의 여맹단체들의 적극적인 생산 참여를 촉구했다.[178] 이에 따라 지방 여맹에서는 품앗이반을 조직해 면화재배 사업에 동참했다.[179]

인민경제계획을 통해 면화와 잠견 총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까지도 북한의 직물 생산량은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족한 직물 생산량을 메꾸는 방안 중 하나는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수방직면포였다.[180] 많은 농촌여성이 수방직면포 생산사업에 뛰어들었다. 여맹은 1949년 말부터 평북, 평남, 황해 3도를 중심으로 수방직면포 사업을 진행했다. 황해도 여맹의 경우 9,999명의 선전원이 318회의 선전사업에 참여했고, 5~10명 단위로 14,888개의 생산반을 조직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6번에 걸쳐 77명의 지도원을 파견하고 50,983대의 기대(물레)와 63,845명의 수방직 기능자를 배치했다. 몇몇 여성들은 생산계획량의 면포를 시장에서 사서 수매에 응하거나 삯을 주어 생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애국주의를 내세운 증산경쟁운동에 동참해 면포 832,639필을 생산하여 계획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181] 여맹은 여성들이 '애국적 헌신성'이 사업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182]

---

176) 이금순, 《조선녀성》 1948년 8월호, 「三年동안 거러온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길」, 25~28쪽.
177) 김은주, 《조선녀성》 1949년 9월호, 「평남도녀맹 춘잠협조사업총결과 하추잠협조사업에 있어서의 녀맹의 과업」, 50~52쪽.
178) 중앙녀맹 문교부, 《조선녀성》 1949년 11월호, 「면포생산사업을 적극 협조하자」, 20~21쪽.
179) 리석, 《조선녀성》 1949년 11월호, 「우리는 이렇게 살고있다-면화집중재배지 서부리에서-」, 36~38쪽.
180) 이주호, 2016 앞 논문, 304~305쪽.
181) 중앙녀맹 조직부, 《조선녀성》 1950년 5월호, 「수방직면포생산사업은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10~11쪽.
182) 《로동신문》 1950년 2월 14일자, 「수방직면포증산을 위한 농촌녀성들의 투

양잠업 외에도 여맹은 공장과 같은 생산직장으로 여성들이 진출할 것을 독려했다. 초기부터 여맹은 인민경제발전을 위해서 생산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선진적 모범을 보일 것을 주장했다.[183] 여맹은 근로와 생산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근본정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요, "과거의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판했다.[184] 이제 여성에게 가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 장려되었다.[185] 한편 북한 정권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직장 진출을 요구했으며, 여맹 지도부는 이러한 국가의 요구에 호응해 여성들의 진출을 독려했다. 해방 직후 노동력 부족은 북한의 산업 부문에서 만성적인 특징이었다. 북한 정권은 여성 노동력 유입을 노동력 확보의 주요수단으로 보았다.[186] 이러한 경향은 1949~50년에 들어 강화됐다. 북한 정권은 1950년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여성을 동원할 것과 경공업 및 상업 부문에 여성노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계획했다.[187] 이에 따라 1950년에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여성의 생산직장 진출을 장려하는 사설이 실렸으며, 《조선여성》 1950년 5월호에도 이와 같은 논조의 논설이 등장했다.[188]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성의 생산직장 진출에 대한 강조가 여성의 가정일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맹 지도부는 초기부터 가정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일성은 여맹 제1차대표대회 직전 여맹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쟁」.

183)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一九四七年度 人民經濟發展과 女性」, 1~3쪽.

184) 여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人民經濟完遂에突進하자」, 11~12쪽.

185) 주정순, 《조선여성》 1947년 9월호, 「職場을가진主婦의生活設計」, 29~32쪽.

186) 서동만, 2005 앞의 책, 284~285쪽.

187) 국사편찬위원회, 2003 《북한관계사료집》 39 「二개년인민경제계획 一九五○년도의 보다 높은 성과를위하여 제기되는 몇가지문제」 521~552쪽.

188) 《로동신문》 1950년 1월 23일자, 「생산기업소들에서의 녀성들의 역할」 ; 《민주조선》 1950년 4월 8일자(김광운, 2019 《북조선실록》 40, Korea Data Project, 334~337쪽에서 재인용) ; 김귀선, 《조선녀성》 1950년 5월호, 「녀성들은 적극적으로 직장에 진출하자」, 12~13쪽.

“물론 녀성들이 가정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녀성들이 가정일에만 매달려 나라일에서 제외되여서는 참말로 남성들과 평등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여성에게 가정일과 국가사업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부여했다.[189] 박정애 역시 “여성해방을 잘못인식치말고 여성의 직분 아니 主婦의 책임 어머니의 임무를 잇지 말고 충실히 리해하면서 긔능에 따라 각종의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을 주장했다.[190]

전술하였듯이,《조선여성》의 많은 논자들은 여성의 과학적인 시간 관리를 강조하고 모성을 칭송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직업여성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1946년 12월 25일 여맹이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개최한 좌담회는 당대 직업여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례이다. 좌담회에 참여한 이는 기자, 백화점원, 미용사, 교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성들과 조선여성사의 김석양과 《조선여성》의 책임주필 진백옥이었다. 김석양이 직장에 나와 일하면서 가정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 묻자, 교원 백능파는 네 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토로했다. 기자 임은길은 현재로서는 직업여성이 가정의 일부분을 희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석양이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소나 공동세탁소를 설치하는 데까지 여성운동이 미치지 않느냐고 묻자, 진백옥은 지역에 따라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고는 있으나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며, 국가적 원조가 있을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191]

이 좌담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가사일과 직장을 병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고충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아소와 같은 육아 시설의 설치를 장려했다. 사실 탁아소 설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 국가가 추구한 대표적인 여성정책 중 하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엥겔스의 논리에 근거해 양육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볼셰비키 정부는 이

189)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저작집》 2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206~219쪽.
190) 박정애,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解放八一五일주년을마즘」, 73쪽.
191)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職業女性座談會」, 54~60쪽.

를 국가적 시책으로 제도화했다.[192]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식민지기부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의 설치를 주장했다. 1920년대 후반 근우회는 전국대회에서 의료기관과 탁아소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채택하기도 했다.[193] 해방 직후 김일성 역시 탁아소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나라의 사정"으로 인해 탁아소나 유치원을 모두 건설할 수 없으므로, 여맹이 적극 나서 여성들을 동원해 작은 규모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194]

1947년 초 북한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수는 31,761명으로 보고되었으며, 1949년 12월에는 71,080명으로 증가했다.[195] 북한의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큰 수치는 아니었으나, 여성의 생산직장 진출이 장려되면서 단기간에 여성 노동자는 2배 이상 급증했다.[196] 이에 발맞춰 탁아소 설치도 진행되었다. 1947년 6월 13일 제정된 「탁아소규칙」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 공공단체, 기업소, 또는 개인이 각자의 비용으로 탁아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197] 여맹은 탁아소 설치를 주도한 기관 중 하나였다.

여맹은 1947년도 사업을 총결하면서 탁아소 6개, 아동공원 16개, 유치원 63개 등을 설치했다고 보고했다.[198] 1948년 2월에는 중앙여맹이 직접 운영하는 '38탁아소'가 평양시 순영리에 들어섰다. 여맹은 평양에 들어선 대형규모 탁아소로서 38탁아소를 적극 선전했다.[199] 38탁아소는 생후 8

---

192) 홍찬숙, 2012 〈여성 억압의 물적 토대를 찾다〉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 한정숙, 2010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가족·출산 정책: 현실과 논의들-특히 1920년대 낙태 문제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43, 68~70쪽.

193) 강정숙, 1993 〈일제 말(1937~1945) 조선여성 정책-탁아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9, 5~6쪽.

194)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저작집》 2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206~219쪽.

195) 최경덕,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직업여성은 전여성의 선봉이다」, 16~20쪽 ;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196) 1947년 초 직업여성 수 31,761명은 북조선직업동맹 맹원 중 여성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맹원 수 38만명의 약 8%였다.

19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북한연구자료집》 「북한법령연혁집」 제7편 국민보건, 449~451쪽.

198) 박정애, 《조선여성》 1948년 1월호, 「一九四七년도 여맹 사업총결」, 4~7쪽.

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근로여성의 어린이를 수용했으며, 전체 수용인원은 50명이었다. 비용으로는 어린이 수에 관계 없이 어머니의 월급 10%를 받았다.[200] 1949년에는 북한 전체에 탁아소 45개가 설치되었다.[201]

해방 이후 탁아소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육아의 완전한 사회화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했다. 비교적 큰 규모였던 여맹 직영의 38탁아소 수용인원이 50명, 평양 남포시 국영 탁아소의 수용인원이 60명이었으니,[202] 넉넉잡아 60명을 기준으로 해도 1949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700명 정도로 추정된다. 1949년 12월 기준 직장여성 수가 71,080명이었으니, 모든 유자녀 직업여성의 자녀를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냉방에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홍역에 걸리는 등 개소한 탁아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례도 종종 찾을 수 있었다.[203]

여맹은 주요 공장과 도시 위주로 탁아소를 설치했고 농촌에서는 주로 여맹원들의 노동력을 동원한 임시탁아소 설치를 장려했다. 여맹은 농촌에서 맹원 7~8명씩 한 반을 만들어 탁아반·세탁반 등을 조직하고 농번기에 육아와 가정일을 돌아가면서 맡을 것을 제안했다.[204] 1950년도에 들어서 여맹은 다른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에 '탁아소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한 농촌의 임시탁아소를 개설할 것을 권장했는데, 이때 보모로 열성 맹원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을 추천했다.[205]

사회 참여와 모성 보호를 강조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많은 여성이 생산직장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이 결혼생활에 들어가면

---

199) 《조선녀성》 1948년 2·3월호, 「또하나 민주북조선의 자랑 三八탁아소(중앙녀맹직영)개소!!」, 59~61쪽.
200) 《조선녀성》 1948년 4월호, 「三八탁아소-중앙녀맹 직영-」.
201) 박정애, 《조선녀성》 1949년 7월호, 「남녀평등권법령실시三주년을맞이하여」, 16~19쪽.
202) 김인선, 《조선녀성》 1949년 12월호, 「모성유아에 대한 국가의 배려-남포시 탁아소에서-」, 32~34쪽.
203) RG 242,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204) 김정히, 《조선녀성》 1948년 2·3월호, 「농촌과 림시탁아소」, 55~58쪽.
205) 중앙녀맹 조직부, 《조선녀성》 1950년 4월호, 「농촌계절탁아소 조직에 대한 몇가지문제」, 10~13쪽.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직업여성이 결혼 후에 육아와 가정일로 인해 현실적인 고충을 겪고 있었음을 반증한다.[206] 여성의 직장 진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문제였다. 직장여성들이 겪는 문제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못마땅해 하는 남편과 친척,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이 자주 지적되었다.[207] 여맹은 여성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여성의 직장진출을 반대하는 '봉건적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208] 그러나 여성 개인에게 가정일의 부담이 온전히 지워지고 사회적 육아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직장진출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다.

여맹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여성의 노동력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보조로동'으로 취급하거나 경공업 부문에 여성의 진출을 장려하는 등 성별 분업 인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209] 여맹은 과거 "조선여성이란 집안일이나 걸어보면되는줄알아왔고 체질적 또는 생리적 조건으로 보아 도저히 남자와 더부러 로동할 수는 없다고 인식되여왔"음을 비판하며 이제껏 남자만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왔던 산업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을 '남녀평등'의 결과로 선전하고 홍보했다.[210] 그러나 실상 대다수 여성에게 요구된 것은 가정일과 육아, 그리고 경공업 부문으로의 진출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이후 여맹은 여성해방과 국가건설의 기치 아래 중앙정권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국가사업에 여성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여맹의 활동은 생산, 원호,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여맹은 1948년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의 인민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여성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에

206) 리광, 《조선녀성》 1949년 신년호,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28~30쪽.
207) 《로동신문》 1947년 1월 8일자, 「婦女事業의發展問題에對하여」 ; 주정순, 《조선여성》 1947년 9월호, 「職場을가진主婦의生活設計」, 29~32쪽.
208) 김귀선, 《조선녀성》 1950년 5월호, 「녀성들은 적극적으로 직장에 진출하자」, 12~13쪽.
209) 국사편찬위원회, 2003 《북한관계사료집》 39 「二개년인민경제계획 一九五○년도의 보다 높은 성과를위하여 제기되는 몇가지문제」 521~552쪽.
210) 《조선여성》 1947년 6월호, 「勞動法令發布以後의北朝鮮의勤勞女性」, 1~5쪽.

보다 집중했다. 특히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한 양잠업 분야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여맹은 직장으로 여성들이 진출할 것을 일층 강조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생산 활동은 기존의 성별분업인식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3. 반(反)식민국제활동과 평화옹호운동

여맹의 활동 범위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의 정부가 수립되어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이전부터 여맹을 비롯한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국제적인 연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전술하였듯이, 여맹은 출범 초기부터 국제민주여성연맹(WIDF: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이하 '국제여맹')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 국제여맹은 1945년 11월 26일 파리에서 41개국 여성단체들과 맹원 800여만명으로 창설되었다. 국제여맹은 제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에 반대하고 가정을 옹호하며 파시즘을 배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211] 국제여맹이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제여맹은 서구와 비동맹권의 여성단체들과 접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12] 201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제여맹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국제여맹이 냉전적 패러다임을 넘어 반파시즘·반식민주의 구호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을 규명했다.[213] 여맹은 1946년 5월 제1차 대표대회에서 국제여맹 가입 신청을 결의했다. 이후 1946년 10월 14일 국제민주여성연맹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가맹을 허락했다.[214]

---

211)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10월호, 「國際女性聯盟加入 一週年을맞으며」, 5~7쪽.

212) 책임 편집 이리에 아키라, 이동기·조행복·전지현 옮김, 2018 《하버드 C.H.베크 세계사: 1945 이후 서로 의존하는 세계》, 민음사, 662쪽.

213) 김태우, 2021 《냉전의 마녀들》, 창비, 12~14쪽. 예를 들어, 프란시스카 더 한(Francisca de Haan)은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반파시즘과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구호 아래 국제여맹을 창립했음을 밝혔으며(Francisca de Haan, 2010 "Continuing Cold War Paradigms in Western Historiography of Transnational Women's Organisations: the case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WOMEN'S HISTORY REVIEW 19(4)), 캐서린 맥그리거(Katharine McGregor)는 1945~1965년 베트남과 알제리에서의 반식민운동 지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여맹이 반식민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점을 규명했다(Katharine McGregor, 2016 "Opposing Colonialism: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and decolonisation struggles in Vietnam and Algeria 1945-1965" WOMEN'S HISTORY REVIEW 25(6)).

국제여맹을 매개로 한 여맹의 국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었다. 우선 국내적으로 여맹은 국제활동을 북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홍보했으며, '세계 선진 여성'의 모습을 국내 여성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각종 건국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여맹의 국제활동은 냉전의 자장 속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활동은 일방향적인 선전 외에 다른 가능성을 담지했다. 전술했듯이, 국제여맹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여성들만이 참여한 기구는 아니었으며, 각국의 여성들은 국제여맹을 통해 여성 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즉 여맹은 국제여맹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국제적인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아세아여성대회는 탈식민국가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차별 경험을 공유했던 장으로, 반식민주의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 위치했다.

여맹의 첫 국제적 진출은 1946년 10월 10~15일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여성연맹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때 국제여맹은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가맹을 정식으로 허락했으며,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장 허정숙은 여맹을 대표하여 조선 여성운동의 경과 및 여성의 처지와 여맹의 활동 등을 보고했다.[215] 집행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인 9월 28일 김일성은 허정숙과 담화를 가졌다. 김일성은 국제여맹 가입이 여성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녀성들과 세계 진보적녀성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더욱더 강화할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 정치적 의의를 밝혔다. 김일성은 또한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방해 책동을 주의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과 여성들의 성과를 선전할 것을 지시했다.[216]

---

214)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國際民主女性聯盟理事會經過와 北朝鮮民主女性同盟의當面課業」, 79~91쪽.

215)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8~10쪽 ;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9~15·26쪽.

216)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전집》 4 「국제민주녀성련맹 집행위원회에

허정숙은 실제 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시 사항을 반영해 「전세계 민주여성에게 고함」이라는 보고를 발표했다. 허정숙의 보고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이에 저항한 조선 여성운동의 경과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 여성의 활동과 처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때 허정숙은 해방 이후 북한 지역과 달리 남한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한 지역의 영등포 방직회사 여공의 파업 투쟁과 여성들의 쌀 요구 시위, 공창제도의 존속 등을 여성 억압의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허정숙은 남한 여성들이 평등과 해방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인 조선민족반역자 이승만 김구의 일파"와 "미국의 식민지적 통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국제 민주여성들과 단결해 "국제반팟쇼 여성통일전선"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정숙의 보고는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제여맹의 기조가 반파시즘·반식민주의였던 것처럼, 허정숙 역시 보고 전반에서 일본 제국주의 아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이에 저항했던 조선 여성의 활동을 반파시즘·반식민주의 관점에서 소개했다. 동시에 허정숙은 해방 직후 제국주의 세력으로 남한 정치 세력과 미국을 지목했으며,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이며 "식민지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 정권 하에서 여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여맹 지도부는 국제여맹을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때 "여성들의 민주해방과 평등권"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기준점 중 하나였다.[217]

여맹은 국제여맹 가입 결과를 국내에 보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 및 활용했다. 여맹 위원장 박정애는 1946년 10월 25일 여맹 제2차 확대

참가할 북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와 한 담화」 260~262쪽.

217)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8~10쪽 ;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2월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9~15·26쪽.

집행위원회에서 국제여맹 가입을 보고했다. 여맹은 박정애의 보고를 듣고 여맹 활동에 대한 결정서를 통과시켰다. 여맹은 국제여맹 가입을 “세계평화”를 위해 전세계 “반(反) 팟쇼” 여성들과 투쟁하는 길이라고 평가했으며, “세계평화건설”과 “조선의 자주독립”을 연결지었다. 즉 “반동파를 타도하고 민주주의통일전선 위에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곧 세계평화와 반(反) 팟쇼 여성들과의 연대를 의미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선거사업, 문맹퇴치사업, 교육사업, 현물세 납부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맹이 국내 활동을 결정할 때 국제활동 결과를 먼저 보고해 계기로 삼는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여맹은 ‘세계 선진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일례로, 결정서에서 여맹은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제시할 때 여성의 절반 이상이 문맹상태에 있는 것을 “국제무대에 등장한 조선 녀성으로서의 수치”로 표현하며 이를 자각하고 더욱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8]

실제로 여맹의 국제여맹 가입은 북한에서 ‘민주주의적 발전’과 ‘선진’의 상징이자 여성해방의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로동신문》의 한 사설은 북조선여맹의 국제여맹 가입이 “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자랑”이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이 약진했음을 축하했다.[219] 여맹 역시 “금번 조선여성대표의 국제적 참가는 조선여성의 첫 일인 동시에 조선민족의 첫 일”임을 자축했다.[220] 또한 한반도 북부 지역 사회단체 중에서 여성단체가 가장 먼저 국제적인 소속을 가지게 되었음에 주목하여 “일본제국주의침략전쟁에 끌리워 존재조차 찾지 못하던 조선의 더우기나 천대받던 녀성들이 맨 먼저 국제무대에 등단하게 된데 끝없는 감격과 자부”를 드러냈다.[221] 이러한 반응은 국제여맹을 통한 활동이 여맹의 내부적인

218) 《로동신문》 1946년 10월 27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6, Korea Data Project, 130~132쪽에서 재인용).
219) 《로동신문》 1946년 10월 25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6, Korea Data Project, 127~128쪽에서 재인용)
220) 허정숙, 《조선여성》 1947년 신년특집호, 「全世界 民主女性에게告함」, 8~10쪽.
221) 《로동신문》 1946년 10월 23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6, Korea Data Project, 52~53쪽에서 재인용).

단결의 계기이자 조직의 외부적인 선전 수단이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제여맹에 정식으로 가입한 여맹은 국제여맹의회에 2명의 위원과 2명의 후보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다.[222] 여맹은 1946년 11월 26일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박정애와 허정숙을 대의원으로, 12월 4일 제5차 확대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로 함경북도의 유연한과 농민 대표로 황해도의 리안나를 후보 대의원으로 선정했다. 유연한은 당시 39세로 함경북도 청진석냥공장 노동자였다. 그는 소학교 졸업 이후 20년 동안 직공생활을 하였으며, 해방 이후 야간정치학교를 졸업하고 여맹사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했다. 리안나는 당시 33세로 빈농가에서 출생해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농민으로 살았으며, 사리원여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했다. 두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무산계급 출신이면서 해방 이후 여맹에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점에서 후보 선정은 상징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맹을 통해 여성들이 중간 활동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223]

1947년 2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여맹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원 박정애와 후보의원 리안나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국제여맹은 제1차 이사회에서 그간의 활동과 식민지와 반(半)식민지 국가들의 여성운동, 미국의 흑인여성 차별, 아동 문제 등을 토의하고 '반(反)민주 파시즘 세력'과의 투쟁을 맹세했다. 제1차 이사회에 참석했던 박정애의 보고에 따르면, '반(反)민주 파시즘 세력'은 사실상 미국의 후원을 받는 정치세력과 국가들을 의미했다.[224]

여맹 지도부에게 국제여맹 제1차 이사회는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박정애는 한 번 결렬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치적 입장을 국제적으로 호소하는

---

222) 《로동신문》 1946년 11월 20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6, Korea Data Project, 494~495쪽에서 재인용).

223) 《로동신문》 1946년 12월 7일자(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 7, Korea Data Project, 158~159쪽에서 재인용).

224)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國際民主女性聯盟理事會經過와 北朝鮮民主女性同盟의當面課業」, 79~91쪽.

계기로 이사회를 활용했다. 박정애는 이사회에서 '조선의 민주 여성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충실히 실행해줄 것을 갈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프라하의 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225] 또한 박정애는 이후 국내에서 이사회 참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국내 활동 목표와 연결짓기도 했다. 전술하였듯이, 박정애는 여맹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정책과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맹증수여사업 실시를 결정했다. 이때 박정애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남조선의 반동"을 근멸시켜 민주세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자 국제여맹의 결정서를 충실히 실행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226]

여맹의 국제활동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신생국인 북한은 외교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했다.[227]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여맹은 제2차 국제여성대회 참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새로운 국가 수립을 옹호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 국제여맹이 개최한 제2차 국제여성대회는 1948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었으며, 소련을 위시한 44개국 여성대표 4백여명이 참가했다.[228]

이때 이 대회에 남조선민주여성총동맹 대표로 유영준(劉英俊)[229], 북조

---

225) 《로동신문》 1947년 4월 25일자, 「國際民主女盟代議員大會로부터 勝利의굳은 信念가지고 朴正愛代表歡迎裡歸國」

226) 박정애, 《조선여성》 1947년 5월호, 「國際民主女性聯盟理事會經過와 北朝鮮民主女性同盟의當面課業」, 79~91쪽.

227)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8쪽.

228) 《로동신문》 1949년 1월 11일자, 「세계민주녀성들은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싸운다!」.

229) 유영준(劉英俊)은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이자 의사로 활약했다. 근우회 창립 당시 집행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동경에서의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동경여자유학생 출신 구락부를 조직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 지역에서 좌익 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과 '남조선민주여성총동맹' 위원장을 맡았다(《조선일보》 1933년 2월 26일자, 「女人動靜」 ; 《동아일보》 1934년 5월 19일자, 「東京女子留學生 出身俱樂部組織」 ;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남조선민주여성총동맹에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에온 편지」, 23~25쪽).

선민주여성총동맹 대표로 조영이 참가하여 '전 조선'을 아우르는 형식을 취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유영준은 1945년 12월 22일 한반도 이남에서 좌익 여성단체로 성립된 조선부녀총동맹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선부녀총동맹은 1947년 2월 10일 제2차 전체대회를 열고 남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하 '남조선여맹')으로 조직명을 개칭했다.[230] 남조선여맹은 1947년 9월 국제여맹 제4차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가맹 허락을 받았다.[231] 남조선여맹 위원장 유영준은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월북해 북한에서 활동했다.[232] 제2차 국제여성대회에 참석한 유영준과 조영은 1949년 2월 6일 평양시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북녀성열성자대회에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대회명에서도 '남북조선 여성'이 전부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233] 제2차 국제여성대회에서는 24개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여맹 집행위원회를 선거했는데, 집행위원 국가로 '조선'이 포함되었다.[234]

제2차 국제여성대회에서는 1949년 9월 이후 아세아여성대회를 재차 소집할 것이 결의되었으며, 박정애가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235] 아세아여성대회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주와 평화를 옹호하는 세계여성운동의 차원에서 결의되었던 대회로, 반제국주의 민족자립투쟁과 제3세계국가 여성들과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국제여맹은 1948년 "아세아 아동과 녀성생활시찰단"을 인도, 버마, 말레이시아 등지에 파견한 뒤 해당 지역 여성들의 처지를 듣고 1948년 가을에 인도 캘커타에서 아세아여성대회를 소집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국제여맹의 요청을 거절하면

230) 《조선여성》 1947년 4월호, 「남조선민주여성총동맹에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에온 편지」, 23~25쪽.
231) 북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조선여성》 1947년 12월호, 「남조선여성동맹의 국제무대진출을 축하한다」, 20~25쪽.
232)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255쪽.
233) 《조선녀성》 1949년 2월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녀성에게 고함」, 21~27쪽.
234) 《로동신문》 1949년 1월 8일자, 「제二차국제녀성대회에참가하였던조선녀성대표귀국」.
235) 《로동신문》 1949년 1월 11일자, 「세계민주녀성들은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싸운다!」.

서 개최가 무산된 바 있었다.[236]

여맹은 1949년 1월 18일 제16차 중앙 확대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제여성대회를 총결하고 아세아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사업을 논의했다. 아세아여성대회 준비위원회에는 '조선'을 포함해 중국, 인도, 이란 등 7개국의 여성 대표가 참여했다. 이 확대위원회에서 여맹 대표 37명으로 조직된 조선준비위원회는 당면 과업 세 가지를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은 국제 녀성들과 련결을 더욱 굳게 하여 특히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의 은인 쏘련방 녀성과 친선을 굳게 할 것.
>
> 둘째, 김일성 수상이 령도하는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김일성 수상의 신년사를 받들어 북반부의 녀성들은 인민경제 건설에 더욱 로력할 것이며, 남반부 녀성들은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우리 강토에서 철퇴케 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
>
> 셋째, 아세아녀성대회의 의의를 광범한 녀성대중 속에서 선전 해석할 것, 그리하여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자기의 동맹 조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남조선 장기 주둔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절대 배격하며, 리승만 괴뢰정부는 타도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여 조국 국토의 완정과 영원한 부강에 기여할 것.[237]

유영준은 아세아여성대회가 "아세아 녀성의 민족해방투쟁을 전 세계 민주 녀성운동과 련결시키며, 우리들에게 투쟁방향과 투쟁강령을 더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는 의의를 밝혔는데, 위 결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투쟁방향은 남한 정치세력과 미군의 철퇴,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다.

국제여맹이 제기한 아세아여성대회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의 생활과 권리, 민족의 해방에 대한 옹호였다. 국제여맹은 제5차 회의에서

---

236) 《조선녀성》 1949년 2월호, 「제二차국제녀맹대회총결과 조선녀성의 임무에 대하여」, 28~41쪽.

237) 《로동신문》 1949년 1월 20일자, 「전세계의 민주녀성들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투쟁-제十六차녀맹중앙확대위원회」.

1948년 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세아여성대회의 과업을 민족적 독립과 민주, 자유를 위해 아시아의 여성들과 전세계의 여성들을 단결시키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238] 1948년 말에 개최되기로 한 아세아여성대회는 인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지만, 1949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세아여성대회 역시 위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다. 여맹 역시 아세아여성대회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내세웠다.[239]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목표는 여맹의 아세아여성대회 준비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여맹은 북한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아세아여성대회 참가를 활용하고자 했다.

아세아여성대회는 1949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여맹 김귀선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 여성대표 165명과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33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국제여맹을 대표해 서기장이 자리를 지켰다. '조선' 대표로는 박정애, 유영준, 허정숙, 허철 등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 문제와 반제국주의 평화운동이 토론되었으며, 유엔조선위원단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문과 일본 대표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맥아더 사령부에게 보내는 항의문이 채택되었다. 아세아여성대회는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처지를 식민제도와 연관지어 토론하고 탈식민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장이었다. 아세아여성대회에 참석한 각국 여성대표들은 식민지 및 예속국가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 침해가 '제국주의자'들의 박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김귀선은 몇몇 참가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제국주의자'를 소련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국한시켜 소개했다. 일례로, 중국 대표인 등예초는 식민지 여성의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위시한 세계평화민주진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국주의에서 '이미 해방된 국가',

---

238) 《조선녀성》 1948년 10월호, 「아세아의 녀성들이여-국제 민주녀성 련맹 제五차 회의에서-」, 18~19쪽.

239) 《조선녀성》 1949년 2월호, 「제二차국제녀맹대회총결과 조선녀성의 임무에 대하여」, 28~41쪽.

즉 소련과 친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에는 깊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조선’ 대표로 참석한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 대표 중 한 명이었던 허철은 대회에서 남한에서의 유격대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미제와 이승만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북한 여성의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세아여성대회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제국주의 정부를 규탄하는 결정들을 채택했다. 이때 제국주의 정부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를 지목했다.[240]

그러나 국제여맹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최신 연구 동향을 고려했을 때,[241] 등예초나 허철 등이 보인 반응이 아세아여성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음을 확정할 수는 없다. 김귀선의 보고가 당시 아세아여성대회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모든 발언이나 안건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242] 그가 의도적으로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선택해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대회의 분위기와 정확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여맹은 국내에서 열성자대회와 전람회 등을 개최해 아세아여성대회 결과를 적극 지지하고 선전하고자 했다. 1950년 1월 21일 평양시에서 개최된 전조선여성열성자대회는 「아세아제국녀성대회총결과 녀성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 결정서는 아세아여성대회의 결정이 무엇보다 여성해방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연계성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

240) 김귀선, 《조선녀성》 1950년 1월호, 「아세아제국녀성대회의 거대한 성과」, 8~11쪽.

241) 김태우, 2021 앞 책 ; Francisca de Haan, 2010 Op.cit. ; Katharine McGregor, 2016 Op.cit.

242) 일례로, 김귀선의 보고에서 자세히 언급되진 않지만, 1949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세아여성대회에서는 당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이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the French War in Vietnam”)에 대해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캐서린 맥그리거는 이러한 사례가 국제여맹의 반식민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준다고 평가한다(Katharine McGregor, 2016 Ibid., pp. 930-931).

방된 조국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한의 유격투쟁을 지지하고 “원쑤들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높이며 적의 악랄한 도발과 도전을 어느때 어느곳에서든지 일격에 분쇄할 수 있도록 항상 완전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243] 이처럼 여맹은 아세아여성대회를 북한 정권의 통일정책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한편 여맹은 1950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아세아여성대회 귀환전람회를 진행했는데, 개관 첫날부터 만원을 이루었다. 전람회는 남아프리카 대표, 인도 대표, 프랑스 대표 등과 북한 대표가 포옹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외에도 각국에서 보내온 이채로운 선물들을 전시했다. 전람회 광경을 보도한 《민주조선》[244]의 기자는 “대회에 참가한 녀성들이 자기네들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새로운 방화자들을 폭로하는 자기네들의 투쟁모습을 전하는 각종 화보들은 관중들에게 아세아 제국 녀성들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굳게 함으로써 공동의 적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용가할 것을 맹서하게 한다”는 감상을 남겼다. 이처럼 관람객들은 여맹이 개최한 전람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을 접하고 아세아여성대회에 대한 여맹의 메세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245]

아세아여성대회와 마찬가지로 여맹은 당시 국제적인 흐름이었던 ‘평화옹호운동’을 새로운 정부의 국제적 인정과 통일방침에 대한 대중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1949년 3월 북한 정부는 평화옹호국제문화인연락위원회와 국제민주여성동맹의 발의로 소집된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를 열고 평화옹호세계대회민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준비위원회에는 문화계와 여성계, 종교계를 대표해 한설야, 박

---

243) 《조선녀성》 1950년 2월호, 「아세아 제국 녀성대회 결정서를 지지하는 전조선 녀성열성자 대회」, 4쪽 ; 《조선녀성》 1950년 2월호, 「아세아제국녀성대회 총결과 녀성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5~7쪽.

244) 《민주조선》은 북한 ‘인민정권’의 중앙기관지로, 1946년 6월 4일 창간되었으며 매일 2만 5천부가 발행되었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이후 발행부수가 10만부로 늘어났다(김광운, 2002 〈북한 정치체제 형성 관련 1945~50년 출판물에 대하여〉 《해방 전후사 사료 연구Ⅱ》, 선인, 150~151쪽).

245) 《민주조선》 1950년 1월 22일자(김광운, 2019 《북조선실록》 36, Korea Data Project, 671~672쪽에서 재인용).

정애, 김창준 등이 대표로 선출되었다.[246] 이때 평화옹호운동의 주 참여자로 문화계와 여성계, 종교계 대표가 선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기 국제 평화옹호운동이 작가, 과학자, 예술가 등 지식인 위주로 전개된 것과 연관된다. 동시에 국제평화옹호운동은 여성운동의 측면에서는 국제여맹이 추구했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 반대 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평화옹호세계대회 자체가 국제여맹과 문화인연락위원회의 공동 발의로 시작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평화옹호운동의 주요한 당사자였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 선언이 발표되자 북한 각지에서는 여성들이 여맹을 중심으로 궐기해 항구적인 평화와 전쟁반대를 외치며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 선언을 지지했다.[247] 1949년 4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69개국 대표 약 1,800여명이 참석한 평화옹호세계대회가 개최되자 《로동신문》은 대회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평화옹호세계대회에는 북한 대표로 한설야, 박정애, 김창준 등이 참가했다. 4월 25일 평화옹호세계대회 최종 회의에서는 평화옹호세계대회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는데, 이 위원회에 한설야와 박정애가 참여했다.[248]

대회가 마무리되고 한설야와 박정애는 각각 《로동신문》에 귀환담을 발표했는데, 박정애는 귀환담에서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여성들이 선두에 서서 평화를 위해 제국주의자와 투쟁할 것을 외쳤음을 강조했다.[249] 《조선여성》 1949년 5월호의 사설 역시 “최근의 평화옹호운동에 있어 특징적인 사실은 평화옹호운동에의 각국 녀성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여성들이 “자기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50]

---

246) 정용욱, 2014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 74쪽.
247) 《로동신문》 1949년 4월 10일자, 「평화옹호 전국련합대회 선언을 적극 지지하여 각지에서 녀성들 궐기」
248) 《로동신문》 1949년 5월 1일자, 「평화옹호세계대회 위원회에 한설야 박정애 량씨도 피선」.
249) 《로동신문》 1949년 6월 12일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각계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되었다-박정애 녀사 귀환담-」.
250) 고백선, 《조선녀성》 1949년 5월호, 「세계인민들의 평화옹호력량은 굳게 단결되고 있다」, 15~18쪽.

그러나 여기서도 제국주의 세력은 어디까지나 소련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한정되었다. 박정애는 귀환보고대회에서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여한 여성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을 또다시 잔혹한 주검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새 전쟁을 반대하는 같은 목적 밑에서 미제국주의를 선두로 하는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자기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했다.[251] 그는 여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라도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고 조국의 국토완정에 헌신할 것을 호소했다.[252] 여맹이 외치는 ‘평화’는 ‘미 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정부’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맹은 창립 초기부터 국제여맹 가입을 결의하고 활발하게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여성운동의 흐름에 적극 참여했다. 국제여맹을 매개로 여맹은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과 만났고, 전쟁 반대와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라는 대전제 하에 많은 의제를 나눌 수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아세아여성대회와 평화옹호세계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석하면서 식민지여성이 겪는 경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북한 체제의 옹호라는 차원으로 귀결되었다. 북한 내부에서 여성해방 의제가 그러했듯이, 여맹의 국제활동 역시 통일국가 건설과 얽혀 진행되었다.

---

251) 《로동신문》 1949년 6월 21일자, 「평화옹호세계대회귀환 박정애 녀사 보고대회」.

252) 김임성, 《조선녀성》 1949년 7월호, 「평화옹호세계대회참가대표귀환보고대회에서」, 30~34쪽.

맺음말

1945년 11월 18일 38선 이북에서 자생적인 여성단체들의 통일조직으로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 출범했다. 초기 여맹은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의 주도 아래 민족주의 계열이 참여한 연합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1945년 말 모스크바 3상회의를 기점으로 여맹 지도부는 민족주의 세력을 조직에서 배제하고 1946년 5월 제1차 대표대회를 열어 조직의 활동 노선을 결정했다. 여맹 지도부는 여성의 처지 개선과 국가건설 사업 참여라는 목표를 함께 내세웠는데, 이는 식민지기 여성운동의 영향과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혼합된 결과였다. 여맹 지도부는 식민지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동력을 이어받아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문맹퇴치나 축첩제와 같은 조선여성의 공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동시에 해방 직후 여맹 지도부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면한 정치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가건설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했다. 여맹은 국가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위한 각종 의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편 여맹 지도부는 북한의 각 행정단위에 여맹 지부를 만들고 광범한 여성 대중을 여맹 아래 조직했다.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룬 여맹은 1947년 7월 맹증수여사업을 실시해 조직의 질적인 강화를 꾀했다. 맹증수여사업을 통해 여맹은 존재하지 않는 맹원을 걸러내고 가입 대상자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조직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색분자'를 색출했다. 1948년 중반 면 책임지도원 제도를 실시해 초급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했다. 이후 리와 반 단위 여맹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는 의무를 가진 면 책임지도원 교양 문제가 대두했다. 1948년 9월 기준 여맹원 수는 약 13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가입대상인 성인여성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북조선로동당은 1947년 초 여맹 내 당조 설립을 기점으로 여맹에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당조의 운영은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이 시기 여맹은 완전한 '당의 외곽단체'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단체'로 평가해야 한다.

초기 여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을 지지함으로써 해방 직후 당면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특히 남녀평등권법령을 선전하고 해설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여맹 지도부는 남녀평등권법령 시행을 통해 여성 차별의 제도적 조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 여성들의 교양과 의식화 사업을 벌였다. 우선 여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호응해 ‘봉건잔재’로 일컬어지는 ‘문맹’과 ‘미신’ 등을 타파하고자 했다. 하부 단위의 여성들은 국가건설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열망에서 이러한 여맹 사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맹은 여성들이 봉건사상을 대신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여맹은 애국주의를 제고하는 정치교양사업에 집중했다. 정치교양사업 출석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여맹의 선전교양사업과 의식화 작업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여성들은 여맹 지도부의 의식화 작업에 일방적으로 이끌리기 보다는 각자의 처지에 맞게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

남녀평등권법령 제정 이후 여맹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국가건설운동에 매진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맹은 여성들에게 재생산 의무와 가정일의 전담이라는 이중 역할을 요구했으며, 국가사업 시행에 있어 성별 분업 인식을 유지했다. 이는 여맹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이자 딜레마로 작용했으며,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여맹은 군대, 학교, 노동자 등을 원호하는 사업이나 농업·공업 분야 직접적인 생산에 뛰어드는 사업, 제방수리나 도로수선과 같은 수리 사업 등에 참여했다. 많은 여성들이 ‘남녀평등의 권리’와 ‘나라를 위한 마음’을 내세운 여맹의 논리에 호응해 사업에 참여했으나, 농민을 감정적으로 위안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해 여맹은 애국주의를 토대로 여성들의 생산성을 일층 제고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분야로의 진출과 양잠업을 강조했다. 여맹은 또한 직업여성을 위한 탁아소 수립에 힘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탁아소 설립과 운영은 많은 한계를 지녔

다. 게다가 여성의 이중역할 요구는 여성들이 직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고충으로 작용했다.

여맹의 활동 범위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았다. 여맹은 1948년 9월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국제여맹이라는 국제여성단체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여맹은 국제활동을 북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홍보했으며, '세계 선진 여성'의 모습을 국내 여성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각종 건국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여맹의 국제활동은 냉전의 자장 속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활동은 일방향적인 선전 외에 다른 가능성을 담지했다. 국제여맹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여성들만이 참여한 기구는 아니었으며, 각국의 여성들, 특히 탈식민 국가의 여성들은 국제여맹이라는 국제적 연대 기구를 통해 여성 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여맹의 아세아여성대회와 평화옹호운동 참여는 북한 정부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면서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전(反戰) 여성운동과 반식민(反植民) 여성운동의 연장선이었다.

이 시기 여맹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여성을 '동원'하기 위한 기구 그 이상의 성격을 지녔다. 당시 북한에서 '동원'의 개념은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혼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여맹 지도부는 여성해방과 민족국가 건설을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를 각종 사업에서 여성 동원의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많은 여성들은 여맹의 논리에 호응하여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문화적인 수준은 일층 향상했으며, 축첩제 폐지나 탁아소 제도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맹의 사업은 실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맹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북한에서 여성이 이미 '해방'되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한계를 보였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으며, 가정일에 대한 여성의 부담은 거의 덜어지지 않았고, 여성의 직장 진출도 기대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맹은 논리상으로 내적인 모순을 드러냈는데, '남성과 동

등한' 사회 진출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일'을 요구했으며, 국제적으로는 반식민 여성운동의 흐름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여성운동의 과제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해방 직후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여성의 권리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많은 북한 여성들은 여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여맹 논리의 모순과 한계를 나름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 공간으로서 여맹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방 직후 하부 단위 여맹을 이끄는 중간 활동가로 활약하는 여성들의 사례는 여맹이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해방 공간에서 여맹의 성격은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여맹의 성격은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하여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전시국가의 필요에 맞게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여맹은 간호병·통신병 등으로 여성을 교육해 배치했으며, 유격대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인민군 가족과 전쟁고아를 보살피는 원호사업을 떠맡았다.[253]

본고는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유일한' 여성조직이자 사회단체였던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조직과 활동 과정을 실증적·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이때 여맹을 일방적인 동원 기구 또는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기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여맹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동시에 여맹 활동을 여성운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여맹의 성격을 재고하고자 했다. 또한 여맹과 중앙정권기관 및 당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는데, 여맹 활동을 통해 역으로 중앙정권기관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맹 지도부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자료가 주를 이루는 사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맹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의 행위와 시각을 최대한 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대 여맹 활동의 다양성과 지도부 중심의 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균열 지점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

253) 박영자, 2006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아시아여성연구》 45(2).

그러나 본고는 여맹과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차이를 온전히 해명하지 못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수립되었던 조국보위후원회를 비롯해 한국전쟁 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는 여맹의 활동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동시대 남한 여성단체와의 상호 영향이나 북한 내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여성단체 또는 세력과의 영향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Ⅰ 자료

1. 신문·잡지류

《조선여성》, 《순간(旬刊) 북조선통신》, 《정로》, 《로동신문》, 《동아일보》, 《槿友》 등.

2. 김일성 저작류

김일성, 1979 《김일성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92 《김일성전집》, 조선로동당출판사.

3. 보고서·자료집·사전·연감류

1) 사전·연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중앙통신사, 1950 《朝鮮中央年鑑》.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1990 《北韓人名辭典》.
강만길·성대경 편, 2014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2) 자료집

김광운, 2018~ 《북조선실록》1~43, Korea Data Project.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4 《北韓 經濟 統計資料集, 1946·1947·1948년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2~ 《북한관계사료집》1~74, 국사편찬위원회.
김준엽·김창순 외 편, 2010 《북한연구자료집》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 보고서

북조선 소련민정국, 1948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제1권 정치편.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of a Soviet Satellite*,

Report No. 5600 (Washington, May 1951), pp.20~22.

4. 미 국립문서관 자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National Archives Ⅱ,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Entry (NM-44) 299C, Box 70, 《민주녀성동맹 당조사업에 대하여》.
National Archives Ⅱ,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Entry (NM-44) 299G, Box 654,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요강》.

Ⅱ 연구성과

1. 단행본

기광서, 2018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Ⅰ》, 선인.
김재웅, 2018 《북한 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김태우, 2021 《냉전의 마녀들》, 창비.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용욱, 2003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박영자, 2017 《북한 녀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앨피.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여성학연구.
이임하, 2015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 영희.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책임 편집 이리에 아키라, 이동기·조행복·전지현 옮김, 2018 《하버드 C.H.베크 세계사: 1945 이후 서로 의존하는 세계》, 민음사.

2. 논문

강정숙, 1993 〈일제 말(1937~1945) 조선여성 정책-탁아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9.
곽채원, 2014 〈북한 청년동맹의 초기 성격 연구(1946~1948) - 조직, 당과의 관

계, 역할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7(3).
기광서, 2011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평화연구》 19(2).
김경일, 2005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
김광운, 2002 〈북한 정치체제 형성 관련 1945~50년 출판물에 대하여〉 《해방전후사 사료 연구Ⅱ》, 선인.
_____, 2005 〈해방 직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상황과 정치 참여〉 《사학연구》 77.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재웅, 2015 〈해방된 자아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정책의 굴절(1945~1950)〉 《한국사연구》 170.
류기현, 2016 〈1945~1950년 조소문화협회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1~72쪽.
마정윤, 2016 〈해방 후 194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8(3).
박영자, 2004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1945~47) - 《김일성저작집》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6.
_____, 2005 〈북한의 여성 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13(1).
_____, 2006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아시아여성연구》 45(2).
박현선, 1988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1945.8~1947.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혜란, 1993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봉숙, 1998 〈조선민주여성동맹 연구〉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세종연구소.
이주호, 2016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학보》 63.
장사선, 2000 〈안함광의 해방 이후 활동 연구〉 《국어국문학》 126.
장원아, 2019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
전현수, 2018 〈북한 주재 소련민정청 3년사〉 《복현사림》 36.
정성임, 2004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한울아카데미.
정용욱, 2014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

정원영, 2018 〈조선민주당 연구: 형성 과정과 활동 노선(1945~1948)〉,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정숙, 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18(2).

_____, 2010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가족·출산 정책: 현실과 논의들-특히 1920년대 낙태 문제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43.

홍찬숙, 2012 〈여성 억압의 물적 토대를 찾다〉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황동하, 2004 〈소련의 전시 포스터에 등장하는 어머니 이미지에 대한 연구〉 《역사와 문화》 9.

황정미, 2002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부녀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8(4).

Suzy Kim, 2010 "Revolutionary Mothers: Women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 - 19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2(4).

Francisca de Haan, 2010 "Continuing Cold War Paradigms in Western Historiography of Transnational Women's Organisations: the case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WOMEN'S HISTORY REVIEW 19(4).

Katharine McGregor, 2016 "Opposing Colonialism: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and decolonisation struggles in Vietnam and Algeria 1945-1965" WOMEN'S HISTORY REVIEW 25(6).

부 록

[부록 1].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제1차대표대회결정서 (출전: 《조선여성》 1946년 해방일주년기념 창간호, 「조선민주여성총동맹 제1차대표대회결정서」, 17~18쪽)

一.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파시즘의 완전 멸망과 민주주의 연합국의 과감한 투쟁의 승리로써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의 철쇄밑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는 더욱이 쓰딸린 대원수의 지도하에 있는 붉은 군대의 위대한 영웅적 승리와 희생적 전투의 결정인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조선여성은 뜨거운 감사와 영예를 드린다.

二. 우리 북조선여성동맹은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된 이후 박정애위원장의 지도하에 분잡다단한 새조선건설과도기에 있어서 북조선에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크다란 착오가 없이 자긱과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북조선여성동맹 산하에는 이미 60만명이란 거대한 숫자를 보게되었다. 이는 각도 시 군 이하 간부동무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정이라고 본다.

三. 조직문제 대다수의 맹원의 확대는 보았으나 질적으로 강화되지 못하고 산조직이 못되었으며 대중과 지도층과의 분리적 현상에 있었다. 또는 지도층의 통일이 없었다는 것과 또는 민주집중제의 회의제를 실행못하였다.

四. 선전문제에 있어서도 ㄱ. 기본적으로 선전사업이 미약하였다. 구체적 선전방법을 구체적 환경에 적용시키지 못하였다. ㄴ. 교양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조직자이며 선전자인 기관지가 없었다. ㄷ. 선전사업이 편면적(片面的)이 없었고 보편적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결점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발표하야 자발공작의 기초로 삼는다.

五. 모쓰크바 3국외상회의의 결정은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부흥시키며 조선민족을 위한 정치경제문화의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믿고 이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소위 반탁이라고 하니 이 결정을 반대한 김구 이승만 조만식 등 일파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숙청하는 것을 투쟁과업으로 한다.

六. 조선민족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수행을 위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근거하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는 우리 여성이 적극 참가하였으며 도 시 군 면 이까지 집행위원으로써 참가함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어디까지던지 지지한다.

七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발표한 토지개혁법령은 조선이 완전한 자유 독립을 달성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권을 달성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권을 수립하는데 근본적 토대가 되며 친일파와 민족반역자파시즘의 경제적 토대를 없이하였으며 반동적 세력을 말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토지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참가하야 실시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야 우리여성동맹원들은 전노력을 다하며 백파쎈트의 파종을 실시하여 생산증가에 참가할 것을 결정한다.
八.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20개정강은 인민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근본문제이며 이 정강을 잘 실현하므로써만 정치적권리 믿 생활향상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강은 가장 조선인민에게 적합한 정강이며 앞으로 조선에 수립될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는 이 정강의 기초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九. 앞으로 조선에 수립될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는 전체인민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진실한 민주주의자가 만이 참가할 것이며 반인민적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一○. 선전교양문제 ㄱ. 문맹퇴치사업은 부락마다 야학을 설치하고 적극실행할 것. ㄴ. 20개조정강에 대한 해설을 대중속에 강력히 전개하여 이를 교제로 만들어 일반군중에게 완전히 인식시킬 것. ㄷ.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는 영원히 농민의 소유라는 것을 철저히 해석하여 인식시킬 것. ㄹ. 생산부흥을 위한 건국의무노동제를 실시하자. ㅁ. 생활향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침으로 가축(염소 소 도야지 닭 양) 사육을 장려할 것. ㅂ. 사업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국위원회는 경제토대를 닦어야 할 것. ㅅ. 각급간부교양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ㅇ. 여성동맹기관지를 발행할 것.

[부록 2]. 1947~1949년 《조선여성》 “지방소식”, “여맹생활단신”, “녀맹생활”, “녀맹단신” 등에 수록된 여맹 활동 정리

시기	도	항목	내용	출전
47.4.15~21.	평북	교양	도 내 간부 60여명 소집하여 단기강습회 개최	1947년 5월호
47.xx.xx.	평북	생산	토지 4천평을 경작하기로 결정 및 착수	1947년 5월호
47.xx.xx.	평북	원호	영변군 여맹이 탄광노동자에게 의복 선물 결정 및 착수	1947년 5월호
47.4.18.	함북	생산	청진시 여맹이 춘기파종 의무노동대를 조직해 퇴비 운반	1947년 5월호
47.xx.xx.	함남	생산	흥남시여맹이 비료운반, 공장 피복제작, 야채종자 분배 및 수확, 가축 구입 주선 등	1947년 5월호
47.xx.xx.	함남	생산	흥남시 등에서 비료공장 돌격대 조직	1947년 6월호
47.xx.xx.	함남	생산	달천군 여맹이 부동광산에서 광석 운반	1947년 6월호
47.xx.xx.	함남	수리	흥남시 등에서 개간지공사, 제방수리, 도로수선	1947년 6월호
47.xx.xx.	함남	생산	단천군 요암리 맹원들이 명태 속을 따고 받은 일당을 리여맹 기금으로 8천원, 문맹퇴치위원회에 5천원 기부	1947년 6월호
47.xx.xx.	함남	생산	신북천에서 운수전사를 위해 석탄 운반 작업	1947년 6월호
47.4.14.	강원	원호	고성군 등에서 산불로 인한 이재민 구호사업	1947년 6월호
47.4.20~30.	평남	생산	500명의 생산돌격대를 조직해 성천군 성흥광산노동	1947년 6월호
47.xx.xx.	평북	원호	용춘군 양광면 농계동 여맹에서 38절 기념 연예회 개최, 축하금 6천원을 동리 인민학교에 전액기부	1947년 6월호
47.xx.xx.	함북	생산	경흥군 아오지면 250명의 맹원이 아오지탄광 탄광굴 회복 공사 작업	1947년 7월호
47.xx.xx.	평북	수리	신의주시여맹 등에서 재해로 인해 붕괴된 제방 개수공사	1947년 7월호
47.6.26.	황해	선전	제8차도여맹확대위원회에서 70세 노인(이재환)이 현물세 납부를 촉구	1947년 7월호
47.xx.xx.	평남	원호	남녀평등권법령 실시 1주년 기념 연예대를 조직해 산간벽촌의 부녀들을 위안	1947년 7월호
47.5.24~6.2.	평남	생산	남포제련소 사택여맹이 463명으로 생산돌격대를 조직	1947년 7월호
47.xx.xx.	평남	원호	남포시여맹이 남포제련소노동자에게 장갑을 제작하여 제공	1947년 7월호
47.xx.xx.	함남	생산	다천면 동호리 여맹이 농산물 수확과 애국감자 헌납	1947년 10월호
47.5.20~.	함남	수리	영흥군 억기면 율산리 맹원들이 개간공사 참여	1947년 10월호
47.xx.xx.	함남	생산	홍원군 보현면 용풍리 여맹이 고치 수매사업 계획량 초과 완수	1947년 10월호
47.xx.xx.	함남	생산	북청군 여맹에서 양잠 사업 지도 및 특등 표창	1947년 10월호
47.xx.xx.	함남	생산	신흥군 동산면 달아리 맹원들이 변전소 이전사업에 협조	1947년 10월호
47.10.27.	중앙	회의	제10차중앙확대위원회 개최	1947년 11월호
47.6.xx~8.xx.	중앙	회의	중앙여맹 문화교양부 사업 총결	1947년 11월호

47.9.25~.	평남	원호	제15차도여맹상무위원회에서 양로원 고아원 후원사업 강화 결정, 침구와 의류를 제작해 선물	1947년 11월호
47.10.20.	황해	원호	해주시 읍천동 맹원들이 경비대위안회 개최	1947년 11월호
47.xx.xx.	강원	생산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2구 여맹원들이 리인민위원회위원장 등 간부 자택의 퇴비 운반 작업 후 받은 사례금 900원을 학교와 보안대에 기부	1947년 11월호
47.xx.xx.	강원	원호	연천군 여맹에서 음악대를 조직해 농민 위문	1947년 11월호
47.xx.xx.	함북	선전	경성군 주은리 여맹에서 세금징수대 10대를 조직해 개개호를 방문 및 징수	1947년 11월호
47.6.xx~8.xx.	함북	원호	보안대에 위문품 제공	1947년 11월호
47.xx.xx.	황해	선전	연백군 여맹에서 현물세 완납을 위한 선전원을 각지에 파견	1947년 12월호
47.10.26.	황해	생산	벽성군 금단면여맹열성자대회에서 새끼와 가마니 생산을 결정하고 작업에 착수	1947년 12월호
47.10.30~11.4.	황해	생산	벽성군 가좌면 안봉리여맹대회를 소집하고 가마니 생산	1947년 12월호
47.xx.xx.	강원	생산	인제군 등에서 노력반을 조직해 농사일을 도움	1947년 12월호
47.xx.xx.	강원	수리	사묵면 모란리 내 학교의 교정과 도로 수리	1947년 12월호
47.xx.xx.	강원	원호	사묵면 지촌리 맹원들이 남조선에서 온 동포들에게 추석날 떡 제공	1947년 12월호
47.xx.xx.	함북	원호	경성군 이량면의 모범맹원 김옥령(75세)와 김분녀(71세)가 수의감으로 마련해두었던 누에고치를 사업비용으로 기부	1947년 12월호
47.11.xx.	평양시	원호	보안대 협조사업으로 김장을 담가 줌	1948년 1월호
47.12.15~18.	평양시	생산	북구 맹원 230명이 동원되어 사동탄광의 석탄운반사업 협조	1948년 1월호
47.12.6.	평양시	원호	교원대학 여맹초급단체위원회가 혁명자유가족학원 학생에게 위문품 제공	1948년 1월호
47.xx.xx.	함북	원호	경성군 어랑면 용양리 맹원 206명이 동원되어 벼이삭을 주워 백미 세 말을 혁명자유가족학원에 기부	1948년 1월호
47.xx.xx.	함북	원호	경성군 어랑면 화룡리 맹원들이 벼 25가마니 백미 27말을 혁명자유가족학원에 기부	1948년 1월호
47.xx.xx.	함북	원호	청진시 사봉리의 맹원 김계원이 2천원을 혁명자유가족학원에 기부	1948년 1월호
47.xx.xx.	평양시	교양	이계산운동에 호응해 각 구 여맹에서 문맹퇴치경쟁운동 전개	1948년 2·3월호
47.xx.xx.	강원	원호	원산시에서 방한용 장갑을 만들어 보안대에 기부	1948년 2·3월호
47.xx.xx.	강원	원호	인제군 등에서 백미 책 기타 물품을 보안대에 기부	1948년 2·3월호
47.xx.xx.	황해	원호	송림시제철공장 노동자에게 출근길에 꽃을 주며 격려	1948년 2·3월호
48.1.19.	함북	원호	유엔위원단을 반대하는 청진시여맹열성자대회에서 성의금을 모아 남조선여성에게 원조	1948년 2·3월호
48.2.xx.	함남	교양	각급여맹 간부 강습회 15일간 개최	1948년 2·3월호
48.xx.xx.	강원	생산	통천군여맹원들이 통천탄광 석탄 운반	1948년 4월호

48.xx.xx.	강원	선전	철원군 철원제사공장여맹에서 강원도 각 농촌여성에게 잠견 증산 호소문을 보냄	1948년 4월호
48.3.21~4.5.	황해	생산	재령군 청전면 여맹에서 휴간지 개간사업 전개	1948년 4월호
48.3.17~xx.	강원	생산	문천군여맹에서 고공품생산돌격운동 전개해 남조선여성에게 보내는 성원금 800원 제공	1948년 4월호
48.4.5~6.	황해	수리	평산군 금암면 필대리 여맹에서 교량공사 협조	1948년 4월호
48.xx.xx.	황해	회의	금천군여맹열성자대회에서 양잠생산계획을 토의	1948년 5월호
48.xx.xx.	함남	생산	흥남인민공장 비료출하돌격대 조직, 여맹원 17,918명이 참가	1948년 5월호
48.xx.xx.	함북	생산	경성군 주북면 하고리 맹원 150명이 잠견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냄	1948년 5월호
48.4.14~30.	평북	원호	조선인민군에 수건과 비누 등 위안품을 전달	1948년 5월호
48.xx.xx.	평북	원호	평북도여맹 음악써클이 관개수리공사 작업자들을 위해 순회 위안사업 조직	1948년 5월호
48.5.27.	평북	생산	선천군 선천면 여맹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앙사업 협조를 결정 및 착수	1948년 6·7월호
48.5.27.	함북	선전	청진시 여맹이 여성교육자 열성자대회를 개최해 후원금을 모으고 신학년도 준비사업 관련 호소문을 결정	1948년 6·7월호
48.5.17.	함북	수리	경선군 경선면여맹이 경성초급여자중학교 교실 수리 비용 부담 결정	1948년 6·7월호
48.xx.xx.	함북	원호	온성탄광 맹원들이 신학년도준비사업에 임금 16,000원과 현금 53,600원 기부	1948년 8월호
48.xx.xx.	함남	생산	국영함흥제사공장 맹원들이 2·4반기 계획을 초과달성	1948년 8월호
48.xx.xx.	함남	생산	함주군 천원면에서 현물세 완납을 위한 가마니 공동제작	1948년 8월호
48.xx.xx.	함남	생산	흥남시에서 학교 신축공사와 어장의 고등어 활복작업 돌격운동 개시	1948년 8월호
48.5.28~6.5.	함남	생산	함주군에서 이앙 농번기에 임시탁아소 설치	1948년 8월호
48.xx.xx.	평남	원호	남포시에서 노동법령 2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해 노동자 위안	1948년 8월호
48.xx.xx.	평남	원호	평원군 평원면 대부리의 185명 전 맹원이 여맹임시총회를 열고 신학년도준비사업을 위한 절미(節米)운동 실시	1948년 8월호
48.xx.xx.	평남	생산	순천화학공장 맹원들이 8·15를 기념하여 연간계획 완수예정 단축운동 실시	1948년 9월호
48.xx.xx.	황해	생산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연간 계획량을 달성한 세 명의 맹원	1948년 9월호
48.xx.xx.	강원	선전	원산리 중앙리여맹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자 명부 조사 사업	1948년 9월호
48.xx.xx.	함북	생산	청진방적공장에서 연간계획을 완수한 주수원 맹원	1948년 9월호
48.xx.xx.	평양시	생산	평양견직공장 맹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전습제를 통해 기술자 양성	1948년 9월호
48.xx.xx.	강원	생산	평강군 서면의 이계산 농민이 고치수매 계획량 완수	1948년 9월호
48.6.xx	함남	교양	북청군 후창면 오편마화동리의 이정월 무당이 리여맹총회에서 자아비판 후 리여맹이 미신타파 운동 전개	1948년 9월호
48.xx.xx.	평남	생산	룡강군 서화면 김정보 맹원이 면화이식에 성공	1948년 9월호
48.xx.x	황해	생산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 위해 돌격	1948년

x.				10월호
48.xx.xx.	황해	원호	금천군 서천면에서 보안대에 호박, 감자, 옥수수 등 위문품 선물	1948년 10월호
48.8.xx.	황해	생산	최고인민회의 의원선거를 계기로 64일간 안악군 맹원 1,452명이 동원되어 퇴비 운반	1948년 10월호
48.xx.xx.	강원	생산	석왕사면 중앙리 전체 리맹원 317명이 동원되어 단풍씨 종자 채집에 궐기	1948년 10월호
48.xx.xx.	평양시	생산	강동군에서 양잠지도기술원 200여명과 지도일꾼 파견	1948년 10월호
48.7.xx~8.xx.	평북	생산	초산군 초산면 와인동 맹원 60여명이 양잠사육 강습회 개최, 공동사육 등 실시	1948년 10월호
48.xx.xx.	평북	생산	영변군 연산면 맹원들이 양잠 공동사육 및 공동사육 기술지도	1948년 10월호
48.xx.xx.	평양시	생산	평양제2양말공장 여맹원들 애국적 증산투쟁 전개	1948년 10월호
48.xx.xx.	황해	선전	신천군 여맹원들이 사리원 방직공장을 방문	1948년 12월호
48.xx.xx.	평남	원호	남포시 국영애육원 사업 협조	1948년 12월호
48.xx.xx.	평양시	원호	김일성대학 녀맹초급단체 맹원들이 소련군대 철병과 관련해 선물 증정	1948년 12월호
48.11.27.	황해	선전	사리원시에서 미군남조선주둔안 반대 궐기대회 개최	1949년 신년호
48.10.xx~49.3.xx.	함남	교양	안변군에서 간부와 맹원을 위한 단기강습회 등의 교양사업 전개	1949년 신년호
48.xx.xx.	강원	원호	령천군 진곡면 은대리에서 인민군 및 38선 보안대를 위한 김장, 순회위안, 농사일 등 협조사업	1949년 신년호
48.11.30.	평양시	원호	소련군 환송대회를 개최하고 기념품 수여	1949년 신년호
49.xx.xx.	함북	교양	청진시 남강리의 문맹퇴치사업 모범맹원 마정숙	1949년 2월호
49.xx.xx.	평남	생산	강서군 동진면 고일리에서 춘기파종 준비사업과 면화 및 양잠 준비사업 수행	1949년 2월호
49.1.25.	함남	원호	갑산군 진동면 양유리에서 초등의무교육제 준비 사업, 현금 4,900원 기부	1949년 2월호
49.xx.xx.	평양시	원호	평양견직공장 맹원 10여명이 인민군에게 보낼 선물 제작	1949년 2월호
49.xx.xx.	황해	생산	황해제철소 여맹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을 결정	1949년 2월호
49.xx.xx.	황해	생산	황주군에서 잠견증산을 위해 잠종 780매 사육 결정, 양잠기술 강습회 등	1949년 5월호
49.xx.xx.	함북	원호	길주군 길주면 삼개리에서 초등의무교육제준비사업을 위한 열성자대회가 열려 현금 47,780원과 애국미 15두 등을 기부	1949년 5월호
49.2.28.	함북	생산	경성군 주을요업공장에서 전체맹원 86명이 3월 30일 선거사업을 계기로 책임량 초과달성	1949년 5월호
49.3.xx	함북	생산	회령군 궁심탄광과 유성탄광에서 3월 30일 선거 기념 석탄운반운동 전개	1949년 5월호
49.xx.xx.	함북	생산	종선군 종선면 남산리에서 맹원 11명이 퇴비를 반출해 파종준비	1949년 5월호
49.xx.xx.	함북	생산	학성군에서 2,040명이 동원되어 14일동안 퇴비를 운반하고 인민군대가정 협조사업에 기금 기부, 방풍장제조	1949년 5월호
49.xx.xx.	황해	생산	은율군 이도면 가당리여맹위원장이 인민군대군무자의 어머니이자 여맹위원장으로서 농업증산에 착수	1949년 9월호
49.7.22.	평양시	회의	가두리에서 여맹위원장 좌담회가 개최되어 사업계획 토론	1949년 9월호
49.xx.xx.	평양시	생산	서평양직물공장 여맹모범반의 생산증강	1949년 11월호

Abstract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mocratic Women's League

Kang Sooye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thesis is to empirically and concretely identify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Democratic Women's League, which was the "only" women's organiz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North Korea right after liberation.

On November 18, 1945,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e North Korean Democratic women's league was launched as a unified organization of autonomous women's organizations. The leadership of the women's league which inherited the driving force of the socialist women's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not only insisted on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based on the Marxist theory but also interested in common issues of Korean women such as illiteracy and

the poligamy. At the same tim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the midst of immediate political and social demands of building a new state, the leadership recognized the state construction movement an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s inseparable. The women's league tried to solve various agendas for women's liberation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tate construction movement.

In the beginning, the women's league focused on solving the women's problem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by supporting a series of "Democratic Reform" of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In particular, it focused on promoting and explaining the Gender Equality Law. The leadership believed that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d been completely resolv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Gender Equality Law, so that they carried out a project to educate and raise awareness of women. The women's league argued that women should cultivate scientific and rational values instead of feudal ideolog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48, the women's league focused on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patriotism. The attendance rate was not as high as expected, which implicates that the program was not complete.

After the enactment of the Gender Equality Law, the women's league emphasized that women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 state building movement "just like men". Meanwhile, they demanded the dual roles of women in full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ve duties and household chores, and maintained awareness of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national projects. The women's league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to support the military, schools, and workers, direct production in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fields, and to repair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women's league wanted to further enhance women's productivity based on patriotism, and specifically emphasized entry into the light industry and sericulture. The women's league also established day care centers for professional women, but the operation still had limitations. In addition, women's dual role demands acted as a real stumbling block for women to enter the workforce.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women's league was not limited to domestic a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September 1948, the women's league joined an international women's organization called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 and was active. The women's league promoted international activities as an indicator of North Korea's democratic development. and criticized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atmosphere of the Cold War. However, these international activities carried other possibilities besides one-way propaganda. WIDF was not an organization that only women from socialist countries participated. Women from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women from post-colonial countries, were able to shar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in this internaional organization.

During this period, the women's league was more than an organization for the state to unilaterally mobilize women. At that time, the concept of "mobilization" in North Korea existed in a state of mixing voluntary and involuntary. Many women responded to the logic and participated in various projects for a new democratic state that guranteed women's rights. Actually, the cultural level of women was further improved, and various policies for women such as the abolition of polygamy or the daycare system were realized. However, the women's league's business faced many difficulties in reality.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ill persisted, women's burden

of household chores had hardly been alleviated, and women's entry into the workplace had not been achieved as much as expected. In addition, the women's league revealed a logical contradiction: emphasizing entering into society "just like men" while demanding "women's role", and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nti-colonial feminist solidarity movement while interpreting women's issue in the direction of defending the legitimacy of the domestic system.

keywords : North Korean Democratic Women's League, WIDF, *Chosŏn yŏsŏng*, North Korean women, social organization, gender equality
Student Number : 2018-23287